



II

2022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

1. 살인

1) 범죄유형

- 2022년에는 총 738건의 살인범죄¹⁶가 발생하였다. 이중 일반 살인범죄가 646건으로 87.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존속살해 51건(6.9%), 자살교사/방조 23건(3.1%), 아동학대살해¹⁷ 8건(1.1%), 영아살해 7건(0.9%), 촉탁·승낙살인 3건(0.4%)이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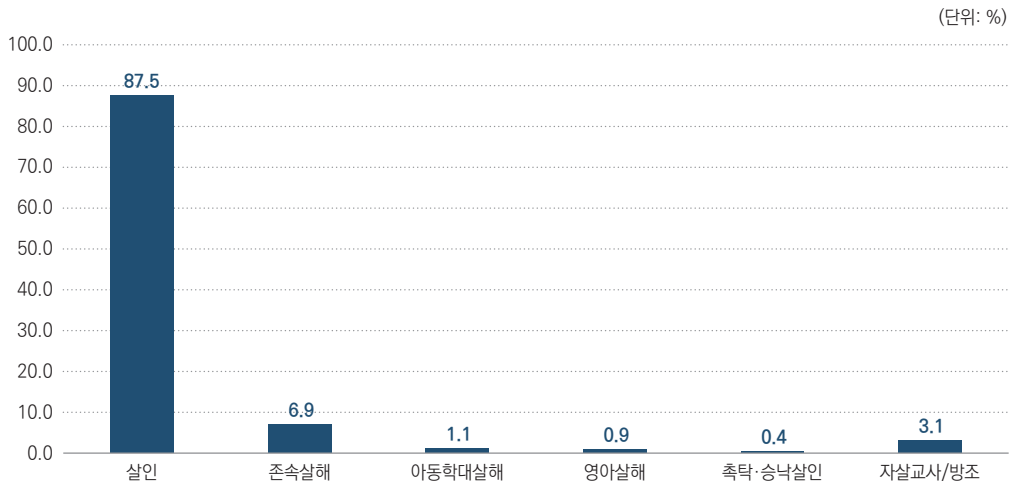


그림 24 주요 살인범죄 유형별 구성비

16 살인범죄의 발생건수는 살인(기수), 살인(미수, 예비, 음모, 방조) 범죄가 모두 포함

17 아동학대살해: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(아동학대살해)을 의미

2) 범죄발생시간

- 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¹⁸은 밤(20:00~03:59, 35.9%)이었으며, 그 다음으로는 오후(12:00~17:59, 26.4%), 오전(09:00~11:59, 13.8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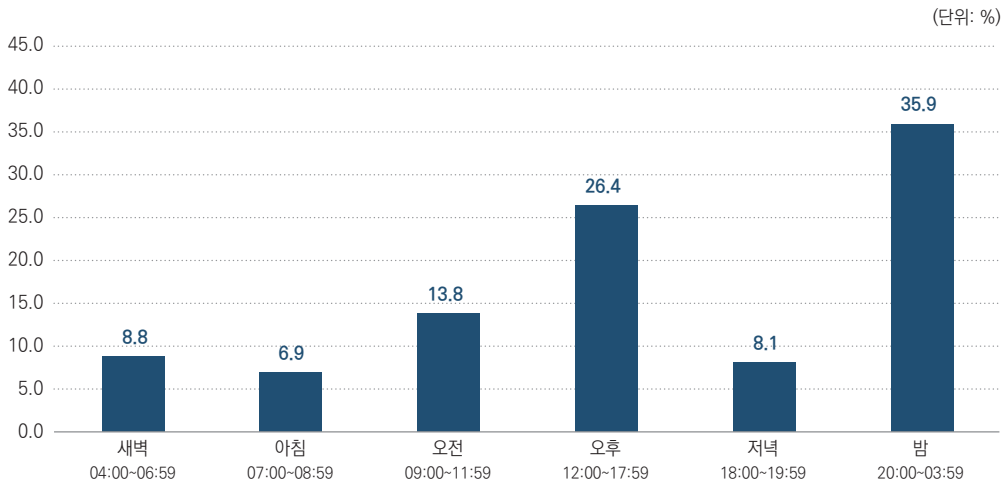


그림 25 살인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3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살인범죄 피해자의 58.1%는 남자였으며, 41.9%는 여성이었다.
- 살인범죄 피해자의 68.6%가 41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.
- 남성피해자는 61세 이상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51세~60세 순이었다. 여성피해자는 61세 이상이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은 51세~60세 순이었다. 15세 이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건수는 남아동 27건, 여동 11건으로 남아동이 여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, 피해비율은 남아동이 6.7%로 여동에 비하여 2.9%p 높게 나타났다.

18 발생시간별 비율은 발생시간이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, 이하 작성되는 각 범죄별 항목별 표, 그래프에 표시된 비율은 별도로 언급된 경우 외에는 항목별 미상을 제외하고 작성된 통계임



표 24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: 건(%))

피해자 연령	피해자 성		계
	남성	여성	
6세 이하	15(3.7)	7(2.4)	22(3.2)
7세-12세	10(2.5)	3(1.0)	13(1.9)
13세-15세	2(0.5)	1(0.3)	3(0.4)
16세-20세	6(1.5)	8(2.7)	14(2.0)
21세-30세	43(10.7)	34(11.7)	77(11.1)
31세-40세	45(11.2)	44(15.1)	89(12.8)
41세-50세	88(21.8)	53(18.2)	141(20.3)
51세-60세	91(22.6)	63(21.6)	154(22.2)
61세 이상	103(25.6)	78(26.8)	181(26.1)
계	403(100.0)	291(100.0)	694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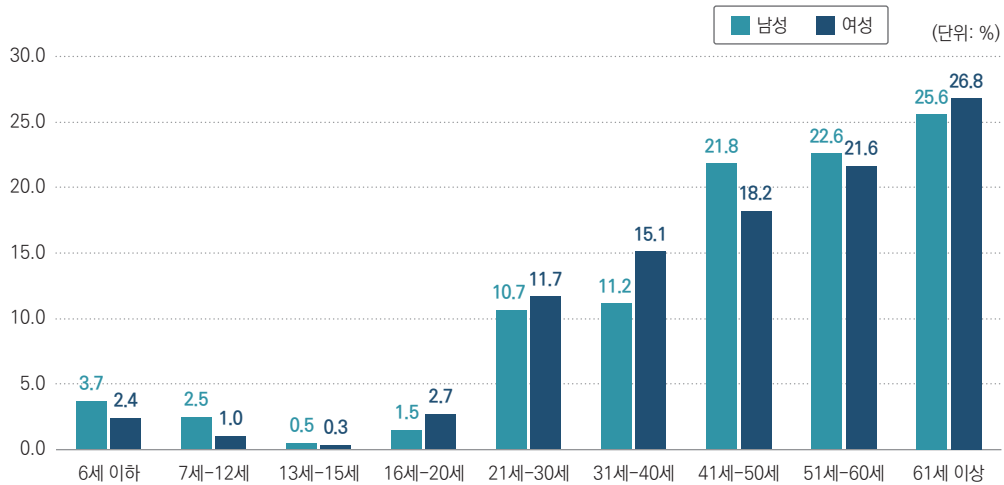


그림 26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4) 신체피해정도

- 살인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234건으로 전체의 33.3%였다. 살인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215건(30.6%), 신체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253건(36.0%)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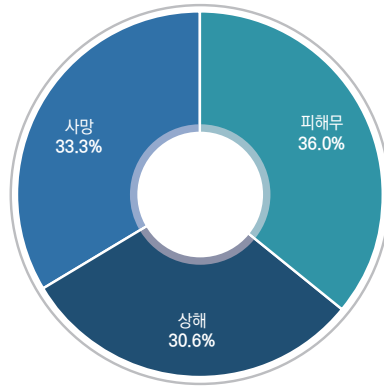


그림 27 살인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

5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, 전체의 19.0%가 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. 타인 외의 관계에서는, 친족관계인 경우가 전체의 32.0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웃/지인(24.1%), 애인(12.1%), 친구/직장동료(6.7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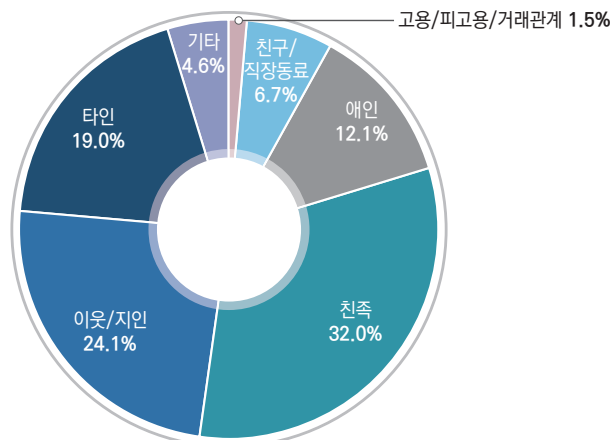


그림 28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

6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81.7%가 남성이었으며, 여성은 18.3%로 나타났다.
- 남성범죄자는 51세~60세 연령층이 26.3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61세 이상, 41세~50세, 31세~40세 순이었다.
- 여성범죄자는 19세~30세 연령층이 각각 26.9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은 51세~60세, 41세~50세 순이었다.
- 여성범죄자의 40세 이하 비율은 45.5%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범죄자(29.8%)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,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표 25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4(2.3)	1(0.7)	15(2.0)
19세~30세	82(13.7)	36(26.9)	118(16.1)
31세~40세	83(13.8)	24(17.9)	107(14.6)
41세~50세	124(20.7)	26(19.4)	150(20.4)
51세~60세	158(26.3)	32(23.9)	190(25.9)
61세 이상	139(23.2)	15(11.2)	154(21.0)
계	600(100.0)	134(100.0)	734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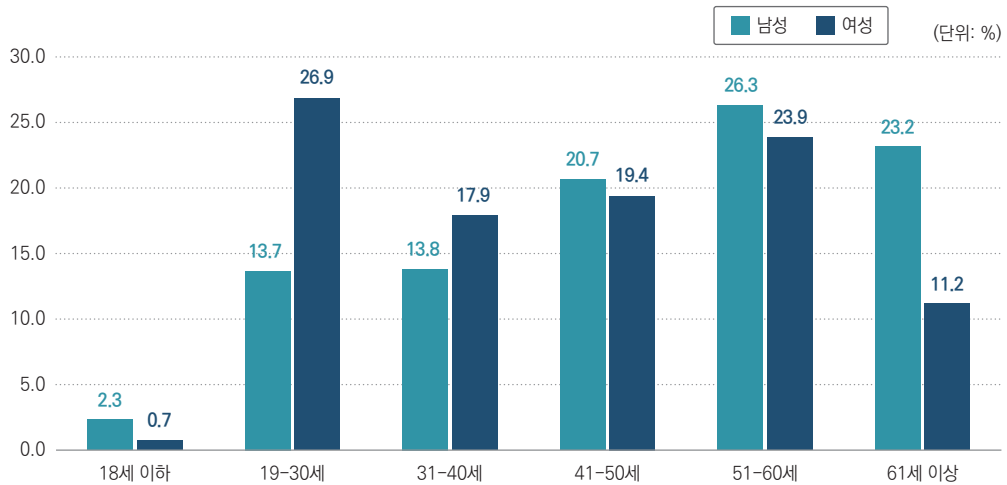


그림 29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7) 범죄자의 전과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2.0%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4.7%이며,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는 23.2%로 나타났다.

8)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-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4.8%가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. 37.5%는 주취상태였으며, 7.6%는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여성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13.8%로 남성범죄자(6.4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, 남성범죄자 중 주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40.9%로 여성범죄자(20.2%)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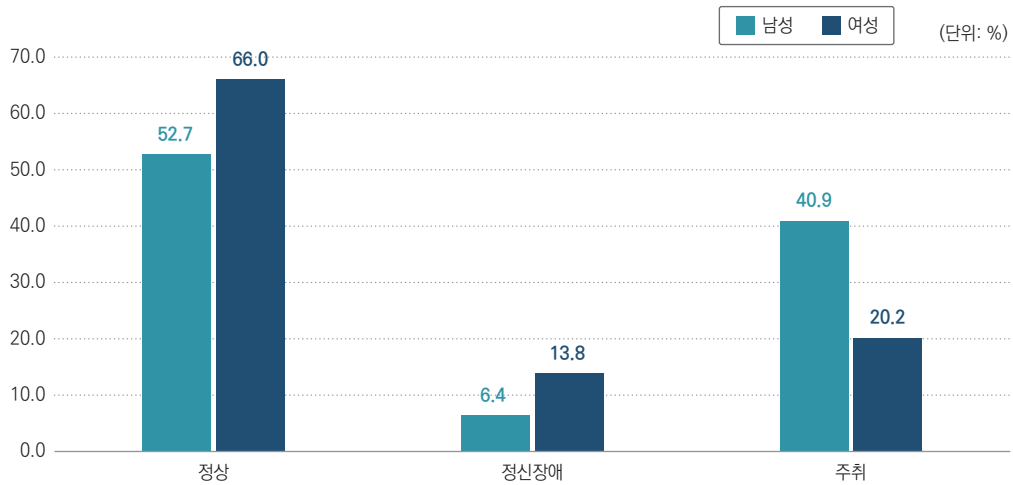


그림 30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2. 강도

1) 범죄발생시간

- 2022년 총 532건의 강도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0.5%가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 전체적으로 강도범죄의 49.7%가 저녁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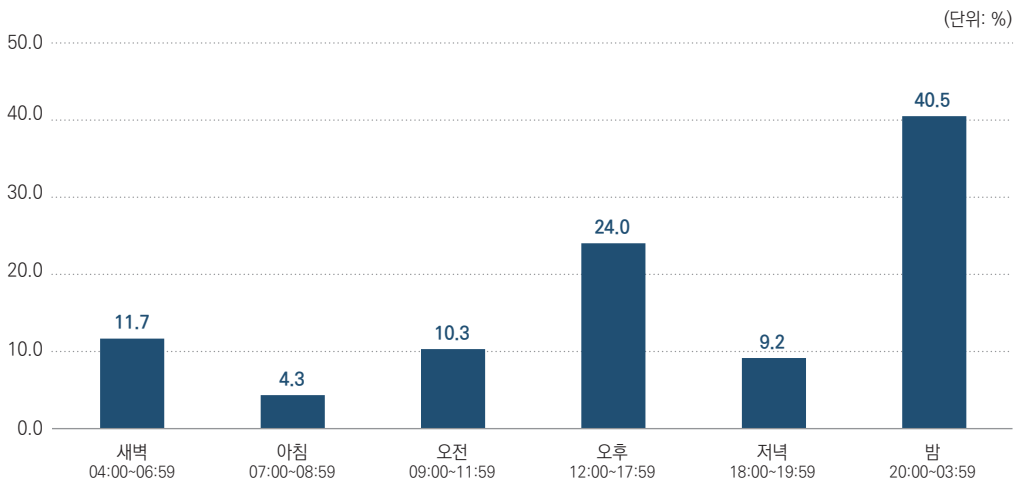


그림 31 강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2) 범죄발생장소

- 강도범죄는 기타(22.0%)를 제외하면, 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26.5%로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 20.3%, 상점 14.3%, 숙박업소/목욕탕 9.0%, 유흥접객업소 7.9%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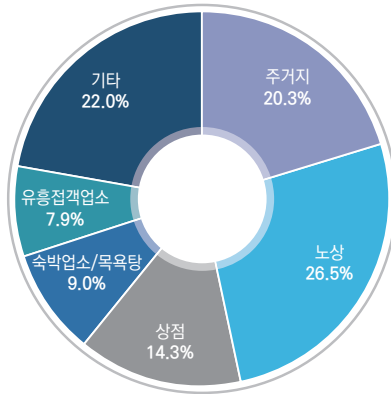


그림 32 강도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3) 범행수법

- 범행수법별로는 기타가 46.8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침입강도 38.3%, 노상강도 7.4%의 순이었다. 이어서 차량이용강도 2.9%, 차내강도 2.3%, 마취강도 1.4%, 강도강간 0.6%, 인질강도 0.4% 등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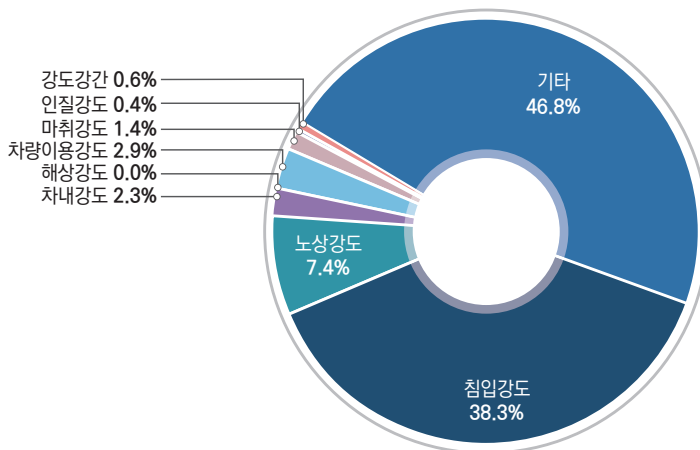


그림 33 강도범죄의 범행수법

4) 재산피해정도

- 강도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피해액수는 10만원 초과~100만원 이하가 26.3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100만원 초과~1,000만원 이하가 24.0%, 1만원 초과~10만원 이하가 15.6%를 차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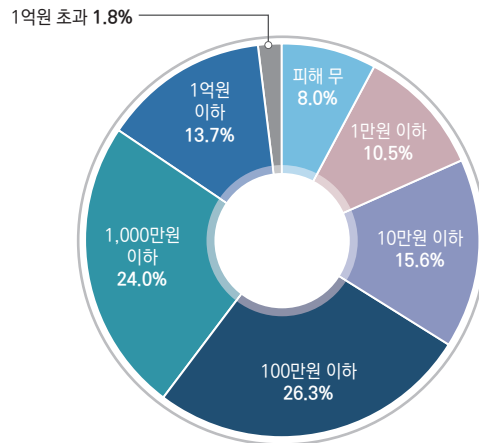


그림 34 강도범죄의 재산피해정도

5) 신체피해정도

- 강도범죄로 인한 신체피해정도는 피해가 없는 경우가 71.5%였고, 상해피해를 입은 경우가 26.4%인 것으로 나타났다. 강도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11건으로 2.1%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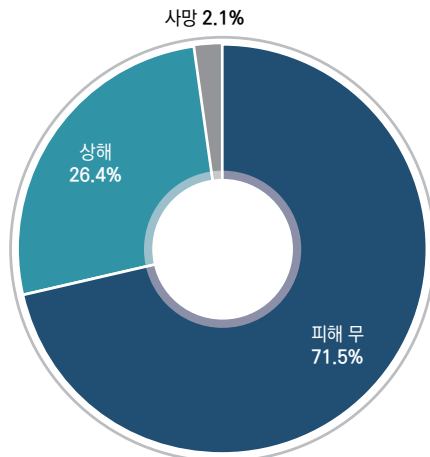


그림 35 강도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

6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강도범죄 범죄자의 88.1%가 남성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.
- 강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, 19세~30세가 29.5%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8세 이하 소년범죄자(21.9%)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- 남성범죄자는 19세~30세의 비율이 30.4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18세 이하(20.0%), 31세~40세(17.8%) 등으로 나타났다.
- 여성범죄자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35.9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19세~30세(22.8%), 41세~50세(15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18세 이하, 51세~60세 연령층의 비율이 높았고, 19세~30세, 31세~40세, 41세~50세, 61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.

표 26 강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36(20.0)	33(35.9)	169(21.9)
19세~30세	207(30.4)	21(22.8)	228(29.5)
31세~40세	121(17.8)	11(12.0)	132(17.1)
41세~50세	106(15.6)	14(15.2)	120(15.5)
51세~60세	70(10.3)	10(10.9)	80(10.4)
61세 이상	40(5.9)	3(3.3)	43(5.6)
계	680(100.0)	92(100.0)	772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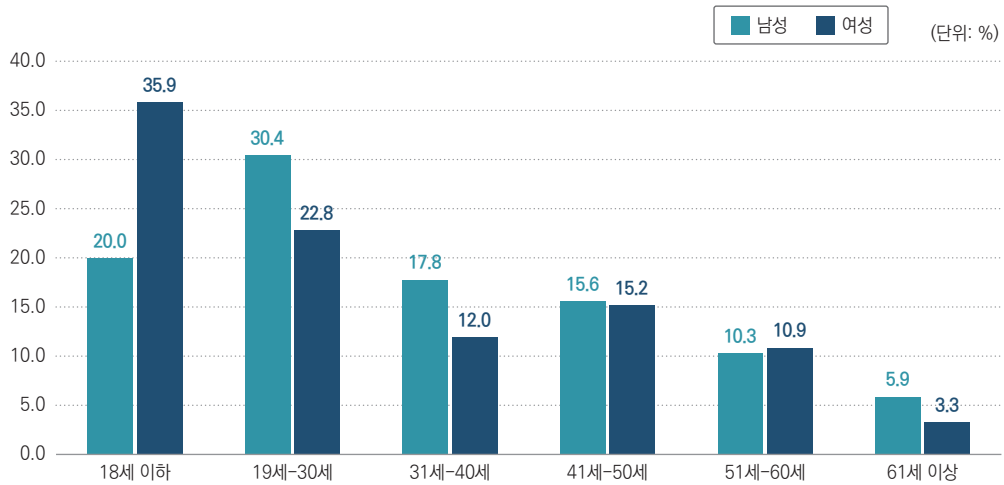


그림 36 강도범죄 범주의 성별 연령별 분포

7) 범행동기

- 강도범죄 범주의 범행동기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, 우발적 동기가 17.9%로 가장 많았고, 생활비 마련 16.3%, 유혹/도박비 마련(12.3%) 순이었다.
- 강도범죄 범주 중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24.2%, 성인범죄자의 비율은 75.8%로 나타났다.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 비율은 유혹/도박비 마련이 성인범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

표 27 강도범죄 범주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범행동기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생활비 마련	23(13.7)	90(17.1)	113(16.3)
유혹/도박비 마련	45(26.8)	40(7.6)	85(12.3)
우발적	17(10.1)	107(20.4)	124(17.9)
기타	83(49.4)	288(54.9)	371(53.5)
계	168(100.0)	525(100.0)	693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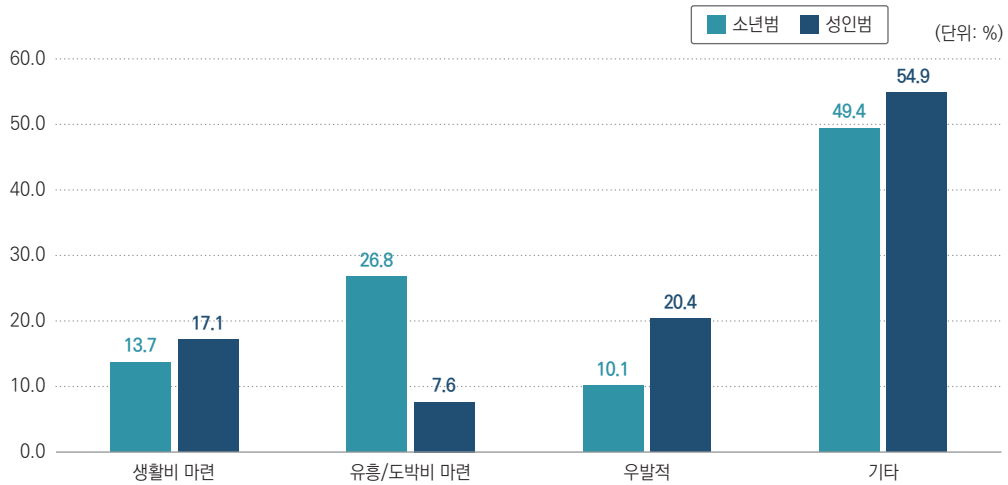


그림 37 강도범죄 범주별 범행동기별 분포

8) 공범 여부

- 강도범죄의 56.3%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성인범죄자의 45.0%가 공범이 있는 반면에, 소년범죄자는 91.7%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표 28 강도범죄 범주별 범행동기별 공범 여부별 분포

공범 여부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단독범	14(8.3)	289(55.0)	303(43.7)
공범	154(91.7)	236(45.0)	390(56.3)
계	168(100.0)	525(100.0)	693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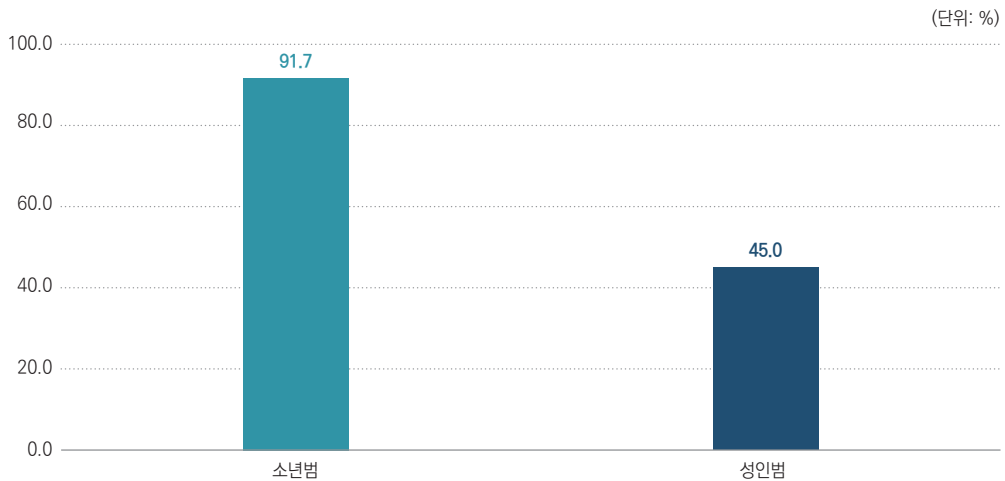


그림 38 강도범죄 범주자의 연령별 공범비율

3. 성폭력

1) 범죄발생시간 및 계절

- 2022년 41,433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3.3%가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고, 25.1%는 오후(12:00~17:59)에 발생하였다. 전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53.9%가 저녁시간 이후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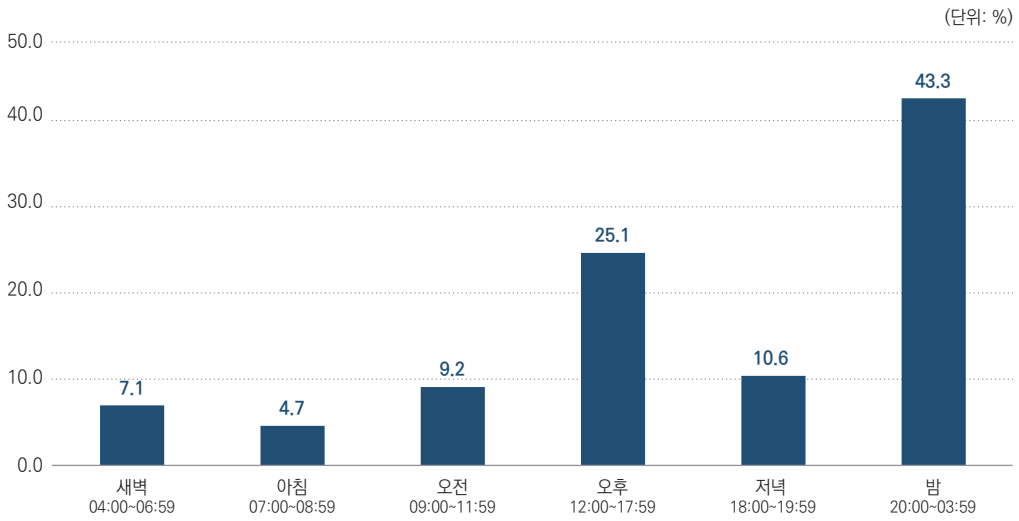


그림 39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-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(29.4%)인 것으로 나타났다. 그 다음은 봄(26.5%), 가을(25.1%), 겨울(19.1%)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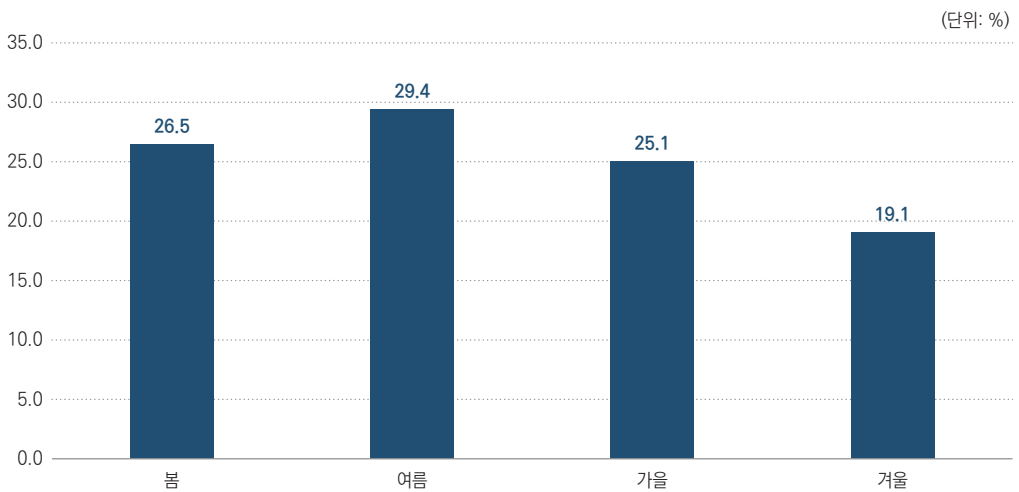


그림 40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계절

2) 범죄발생장소

- 성폭력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, 주거지(25.1%)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, 그 다음으로는 노상(10.1%), 숙박업소/목욕탕(7.9%), 유흥접객업소(7.8%), 교통수단(7.1%)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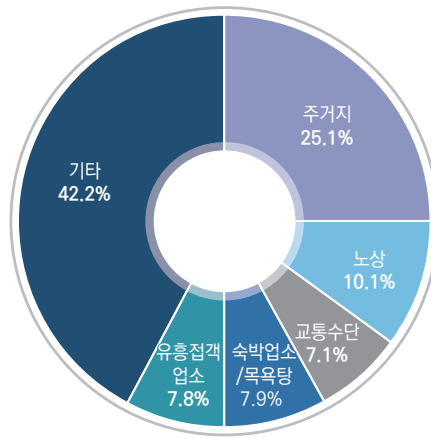


그림 41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3) 피해자의 연령

-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21세~30세(44.9%)가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은 16세~20세(16.4%), 31세~40세(14.5%) 등의 순이었다.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9.6%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었고, 61세 이상의 연령층은 2.5%를 차지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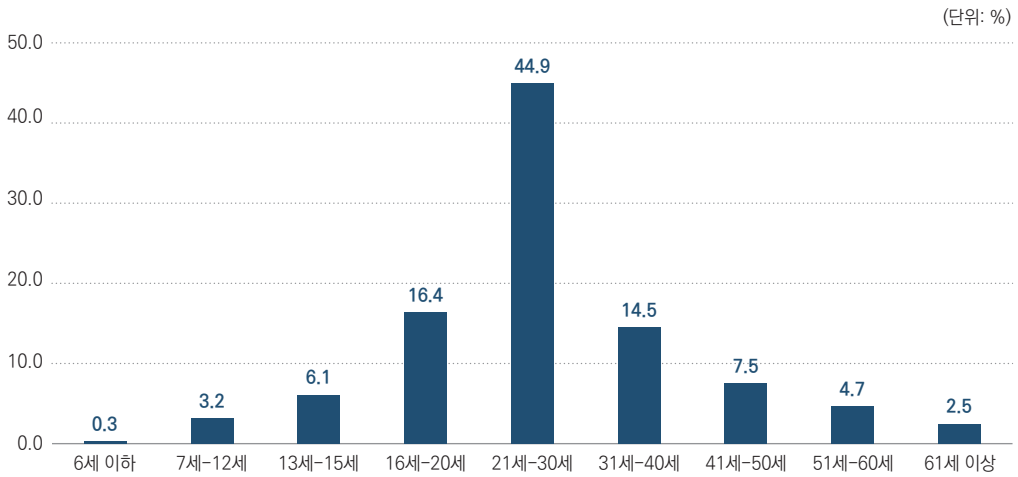


그림 4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

4) 공범 여부

- 성폭력범죄의 95.9%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91.1%로 성인범죄자(96.6%)보다 낮고, 공범비율이 8.9%로 성인범죄자(3.4%)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.

표 29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공범 여부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공범 여부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단독범	3,585(91.1)	24,368(96.6)	27,953(95.9)
공범	352(8.9)	853(3.4)	1,205(4.1)
계	3,937(100.0)	25,221(100.0)	29,158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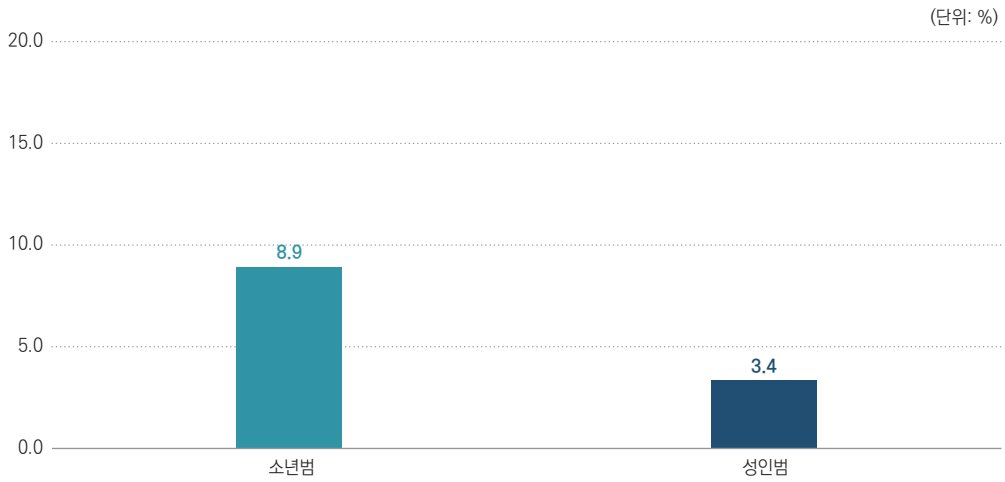


그림 43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공범비율

5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성폭력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, 타인이 64.7%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. 소년범죄자의 경우 친구 등의 비율이 18.3%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, 그 외 타인 등의 비율은 모두 낮게 나타났다.

표 30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피해자의 관계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고용관계	0(0.0)	395(1.5)	395(1.3)
친구 등	728(18.3)	1,618(6.3)	2,346(7.9)
애인	128(3.2)	1,277(5.0)	1,405(4.7)
친족	31(0.8)	684(2.7)	715(2.4)
이웃/지인	316(8.0)	3,295(12.8)	3,611(12.2)
타인	2,540(64.0)	16,703(64.9)	19,243(64.7)
기타	226(5.7)	1,779(6.9)	2,005(6.7)
계	3,969(100.0)	25,751(100.0)	29,720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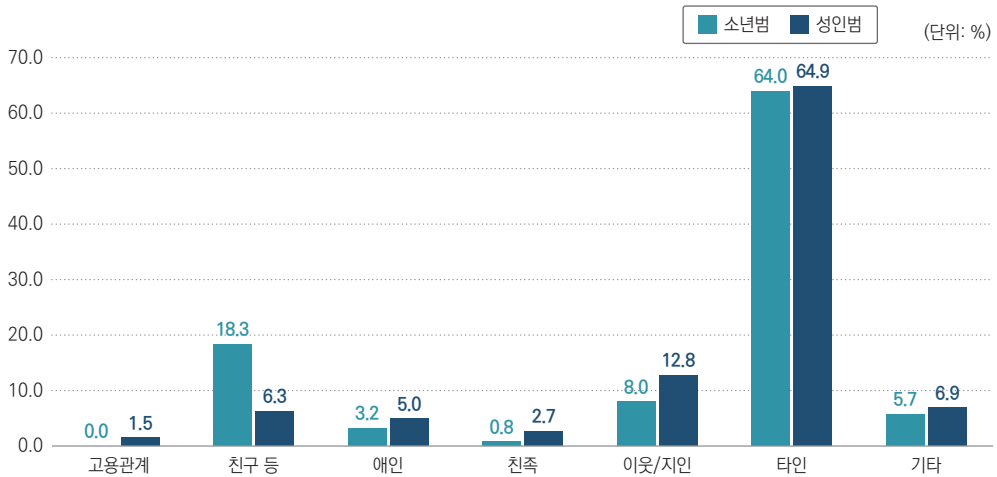


그림 44 성폭력범죄 범주자의 연령별 피해자의 관계별 분포

4. 방화

1) 범죄발생시간

- 2022년에는 총 1,224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2.8%가 밤(20:00~03:59) 시간대에 발생하였으며, 21.5%는 오후(12:00~17:59) 시간대에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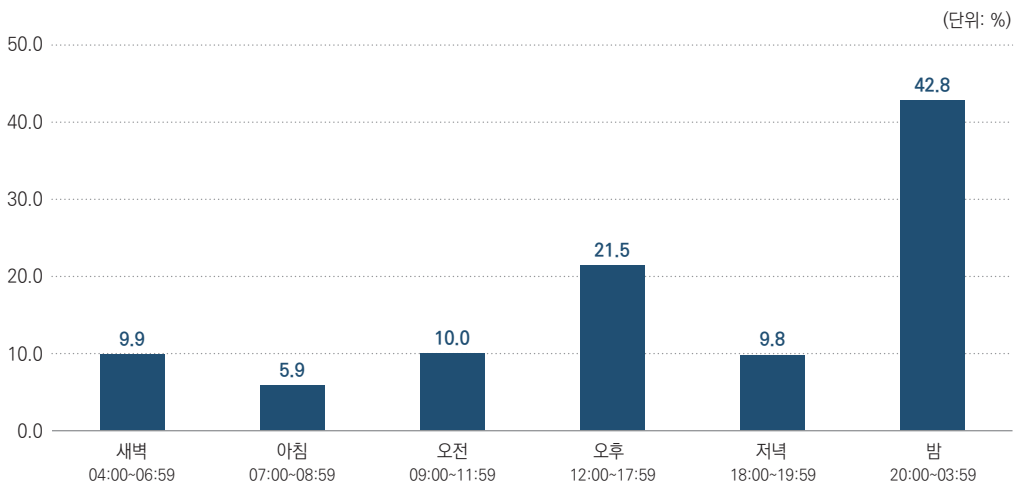


그림 45 방화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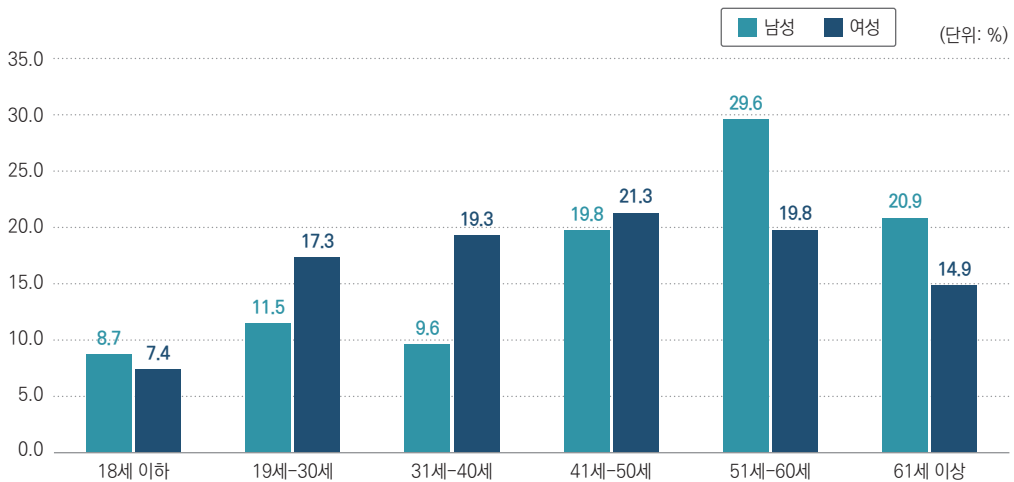
2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의 81.9%는 남성이었으며, 18.1%가 여성으로 나타났다.
-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는 51세~60세가 27.8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41세~50세(20.0%), 61세 이상(19.8%), 19세~30세(12.5%) 등의 순이었다.
- 남성범죄자는 51세~60세의 비율이 29.6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61세 이상(20.9%), 41세~50세(19.8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- 여성범죄자는 41세~50세의 비율이 21.3%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이 51세~60세(19.8%), 31세~40세(19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표 31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80(8.7)	15(7.4)	95(8.5)
19세~30세	105(11.5)	35(17.3)	140(12.5)
31세~40세	88(9.6)	39(19.3)	127(11.4)
41세~50세	181(19.8)	43(21.3)	224(20.0)
51세~60세	271(29.6)	40(19.8)	311(27.8)
61세 이상	191(20.9)	30(14.9)	221(19.8)
계	916(100.0)	202(100.0)	1,118(100.0)


그림 46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3) 방화범죄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

- 방화범죄 범죄자의 46.5%는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, 39.0%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. 방화범죄 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14.5%였다.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(여성 28.2%, 남성 11.5%),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(남성 41.0%, 여성 29.9%).

표 32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행시 정신상태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정상	383(47.5)	73(42.0)	456(46.5)
정신장애	93(11.5)	49(28.2)	142(14.5)
주취	331(41.0)	52(29.9)	383(39.0)
계	807(100.0)	174(100.0)	981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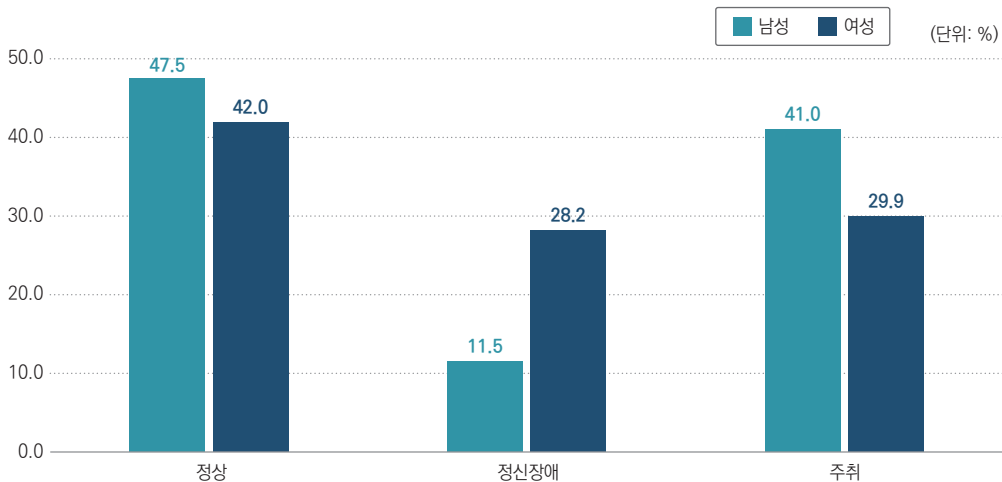


그림 47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

5. 폭행/상해

1) 범죄발생시간

- 2022년 총 158,532건의 폭행/상해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48.1%가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대는 오후(12:00~17:59)로 21.9%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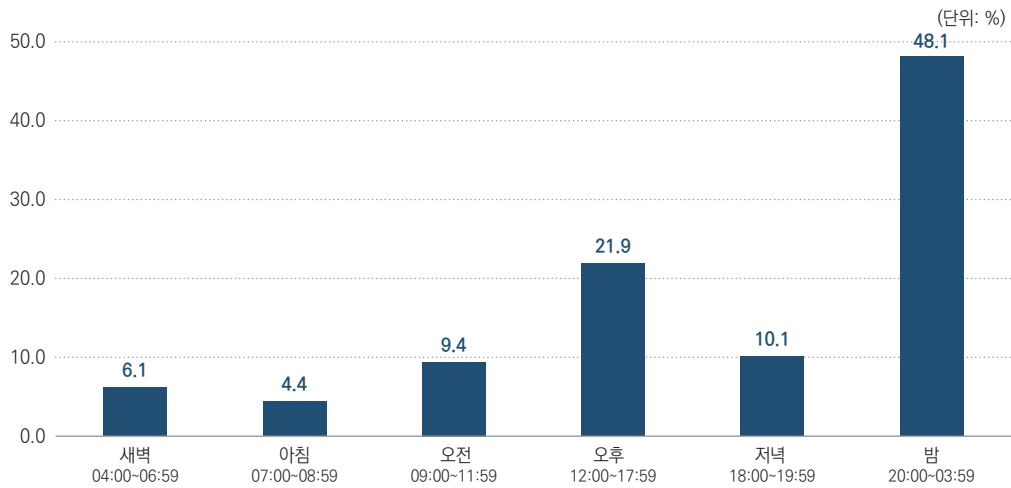


그림 48 폭행/상해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2) 범죄발생장소

- 폭행/상해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, 노상(36.1%)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(26.7%), 유흥접객업소(11.4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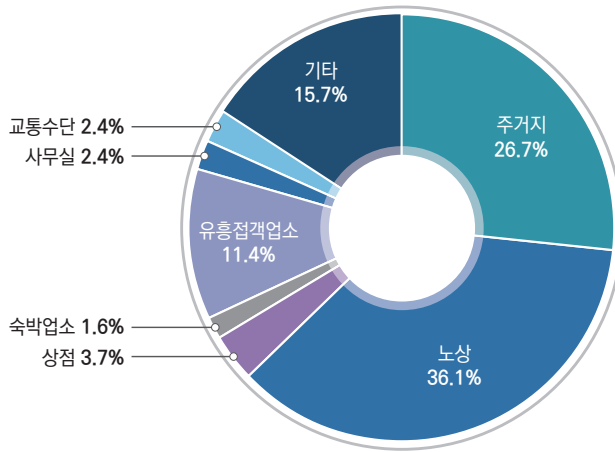


그림 49 폭행/상해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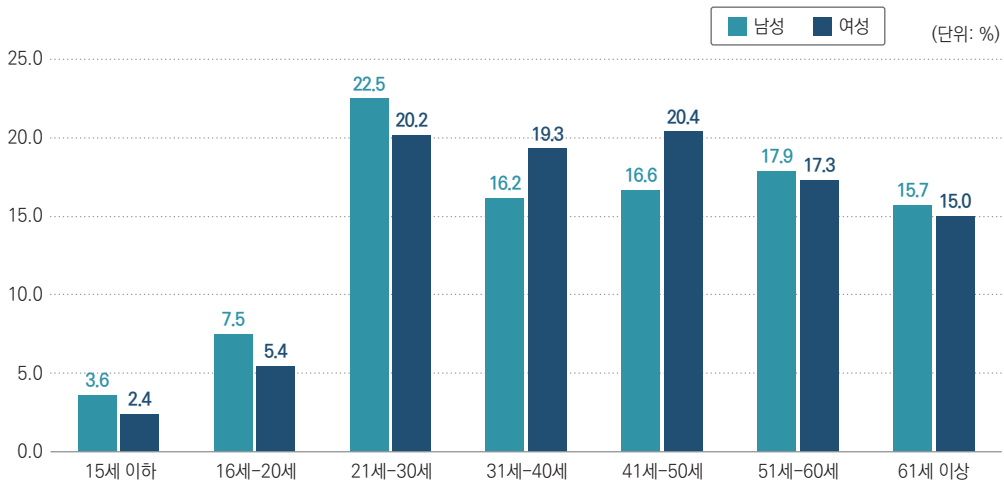
3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폭행/상해범죄 피해자의 61.2%는 남성이고, 38.8%는 여성이다.
- 폭행/상해범죄의 피해자는 21세~30세(21.6%)가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41세~50세(18.1%), 51세~60세(17.7%) 등의 순이다.
- 여성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31세~40세와 41세~50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, 남성피해자의 경우 여성에 비해 15세 이하, 16세~20세, 21세~30세, 51세~60세, 61세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.

표 33 폭행/상해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건(%))

피해자 연령	피해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5세 이하	2,984(3.6)	1,263(2.4)	4,247(3.1)
16세-20세	6,266(7.5)	2,865(5.4)	9,131(6.7)
21세-30세	18,743(22.5)	10,650(20.2)	29,393(21.6)
31세-40세	13,484(16.2)	10,182(19.3)	23,666(17.4)
41세-50세	13,866(16.6)	10,751(20.4)	24,617(18.1)
51세-60세	14,911(17.9)	9,120(17.3)	24,031(17.7)
61세 이상	13,095(15.7)	7,912(15.0)	21,007(15.4)
계	83,349(100.0)	52,743(100.0)	136,092(100.0)


그림 50 폭행/상해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4) 신체피해정도

- 피해자의 83.5%는 폭행/상해범죄로 인해 어떠한 신체피해도 입지 않았다. 상해를 입은 경우는 16.4%이며, 사망한 경우는 0.1%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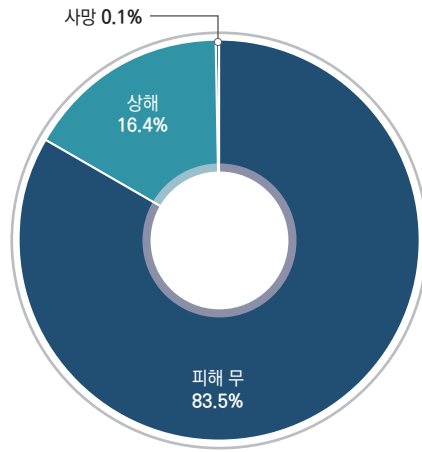


그림 51 폭행/상해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

5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폭행/상해범죄 범죄자의 80.9%는 남성이고, 19.1%는 여성이다.
- 폭행/상해범죄 범죄자의 주된 연령층은 51세~60세(20.7%)이고, 그 다음은 41세~50세(20.6%), 19세~30세(20.4%)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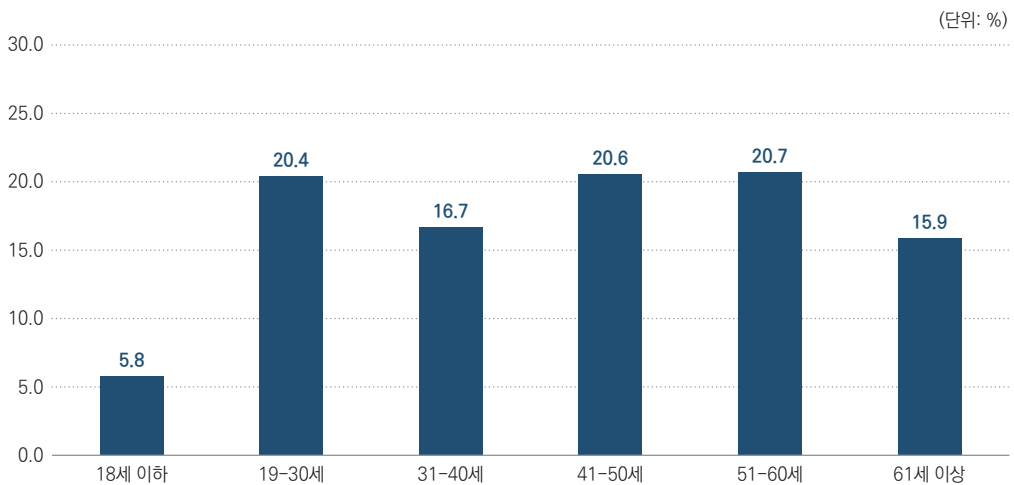


그림 52 폭행/상해범죄 범죄자의 연령

6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폭행/상해범죄의 50.7%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, 44.1%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였다.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21.4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이 이웃/지인(11.4%), 직장동료/친구(6.7%), 애인(4.2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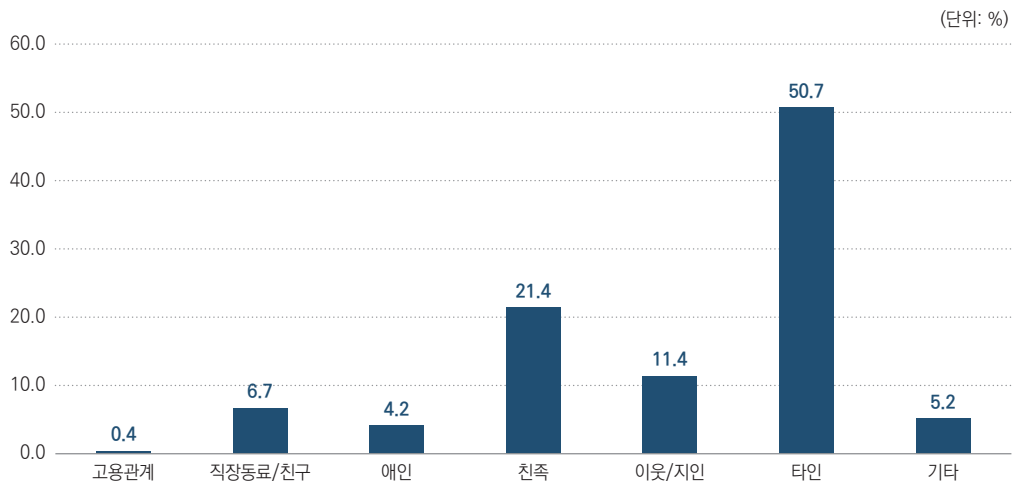


그림 53 폭행/상해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6. 절도

1) 범죄발생시간

- 2022년 총 182,720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36.3%가 오후(12:00~17:59)에 발생하였고, 25.3%는 밤(20:00~03:59)에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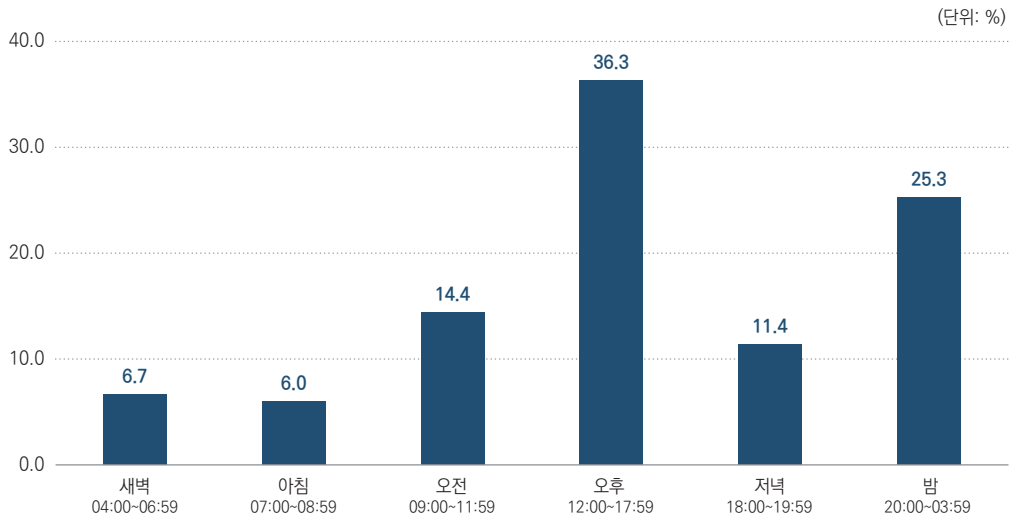


그림 54 절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2) 범죄발생장소

- 절도범죄의 발생장소는 기타(21.8%)를 제외해보면, 노상이 28.5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상점 25.2%, 주거지 13.9%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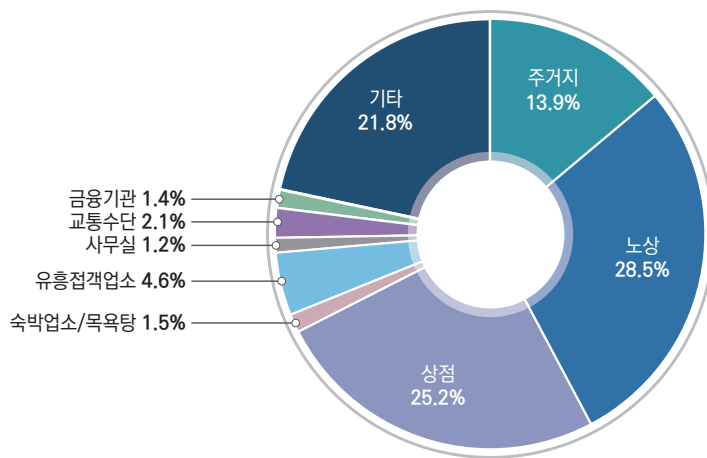


그림 55 절도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3) 범행수법

- 절도범죄의 범행수법은 기타(84.3%)를 제외해보면, 침입절도가 7.6%로 가장 많았고, 치기절도¹⁹ 7.5%, 속임수절도²⁰ 0.6%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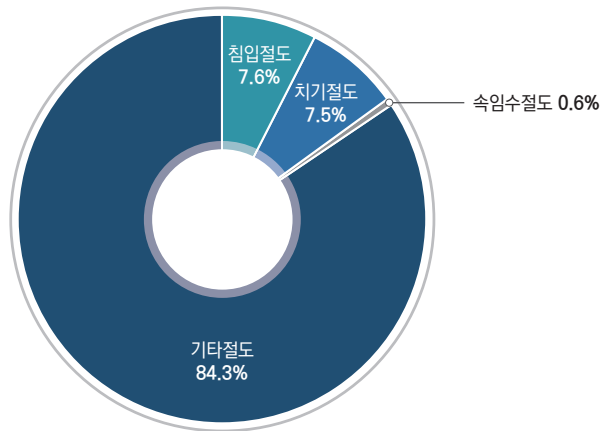


그림 56 절도범죄의 범행수법

4) 재산피해정도

- 절도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살펴보면, 10만원 초과~100만원 이하가 37.6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1만원 초과~10만원 이하가 33.0%, 1만원 이하가 13.8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전체 절도범죄사건의 84.3%가 100만원 이하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.

19 치기절도는 발생통계원표 상 '소매치기', '날치기', '들치기'의 범죄수법을 의미

20 속임수절도는 전화를 걸어 업주를 밖으로 유인하는 등 속임수를 이용한 절도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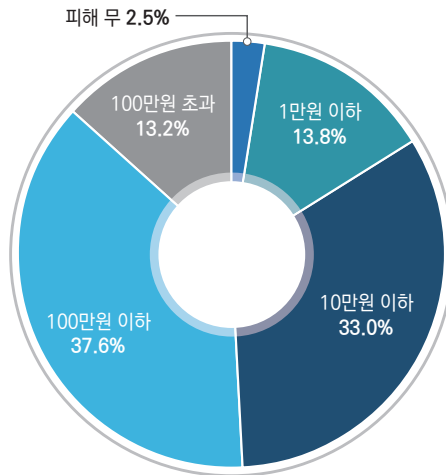


그림 57 절도범죄 피해자의 재산피해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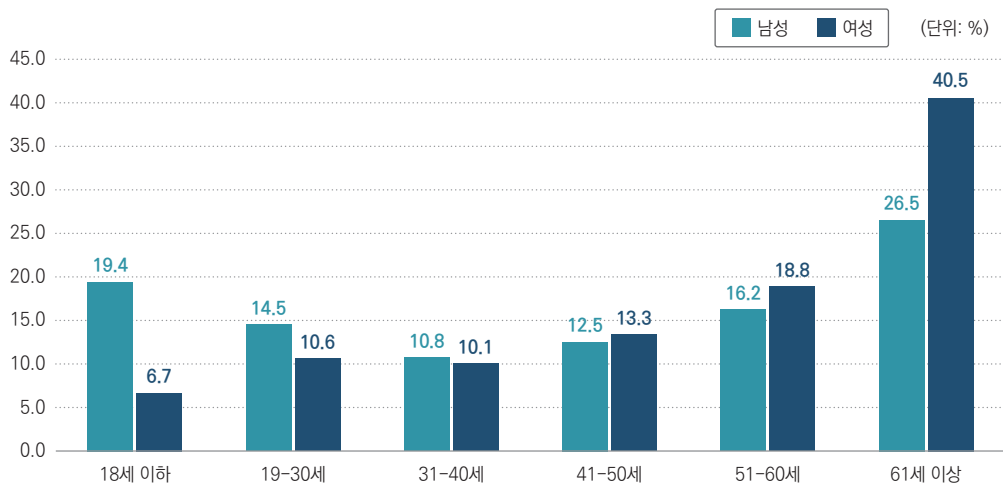
5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70.3%가 남성이며, 29.7%가 여성이다.
- 절도범죄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61세 이상으로 전체의 30.7%를 차지하고 있으며, 51세~60세(17.0%), 18세 이하(15.6%) 등의 순이었다.
- 절도범죄 범죄자는 18세 이하, 19세~30세, 31세~40세의 연령대에서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, 41세~50세, 51세~60세, 61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남성범죄자는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, 여성범죄자는 높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보였다.

표 34 절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범죄자 연령	범죄자 성		계
	남성	여성	
18세 이하	12,930(19.4)	1,867(6.7)	14,797(15.6)
19세-30세	9,682(14.5)	2,967(10.6)	12,649(13.4)
31세-40세	7,173(10.8)	2,821(10.1)	9,994(10.6)
41세-50세	8,347(12.5)	3,741(13.3)	12,088(12.8)
51세-60세	10,784(16.2)	5,290(18.8)	16,074(17.0)
61세 이상	17,672(26.5)	11,380(40.5)	29,052(30.7)
계	66,588(100.0)	28,066(100.0)	94,654(100.0)


그림 58 절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6) 범죄자의 전과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60.2%는 전과가 있었다.
-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전과자 비율은 차이를 보여,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36.3%인 반면에, 성인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65.0%로 소년범죄자에 비해 더 높았다

표 35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전과 여부 분포

(단위: 명(%))

전과 여부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전과없음	9,164(63.7)	24,663(35.0)	33,827(39.8)
전과있음	5,227(36.3)	45,897(65.0)	51,124(60.2)
계	14,391(100.0)	70,560(100.0)	84,951(100.0)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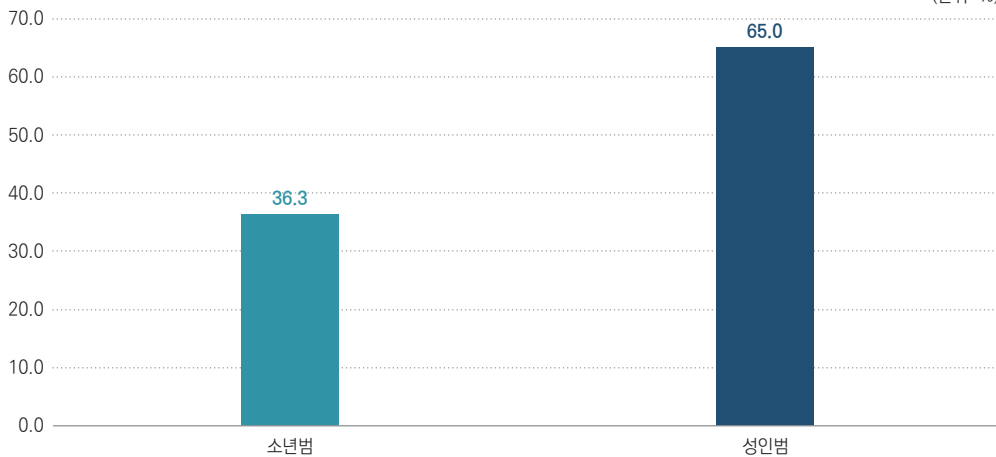


그림 59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전과자 비율

7) 범행동기

- 절도범죄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, 우발적 범행이 37.8%로 가장 많았다. 그 다음은 기타이욕(17.8%), 생활비 마련(7.9%) 등의 순이다.
-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에 비해 호기심/유혹(소년범 20.7%, 성인범 1.7%)에 의해서나 유희/도박비 마련(소년범 3.5%, 성인범 0.5%)을 위해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.
-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 중 이욕에 해당되는 생활비 마련(7.9%), 유희/도박비(3.5%), 기타이욕(15.3%)이 26.7%를 차지함에 따라, 우발적(29.0%) 범행과 함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 범행의 원인임을 나타낸다.



표 36 절도범죄 범의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범행동기	소년범 여부		계
	소년범	성인범	
생활비 마련	1,132(7.9)	5,573(7.9)	6,705(7.9)
유혹/도박비 마련	508(3.5)	375(0.5)	883(1.0)
기타이유	2,198(15.3)	12,927(18.4)	15,125(17.8)
호기심/유혹	2,978(20.7)	1,164(1.7)	4,142(4.9)
우발적	4,176(29.0)	27,903(39.6)	32,079(37.8)
기타	3,389(23.6)	22,489(31.9)	25,878(30.5)
계	14,381(100.0)	70,431(100.0)	84,812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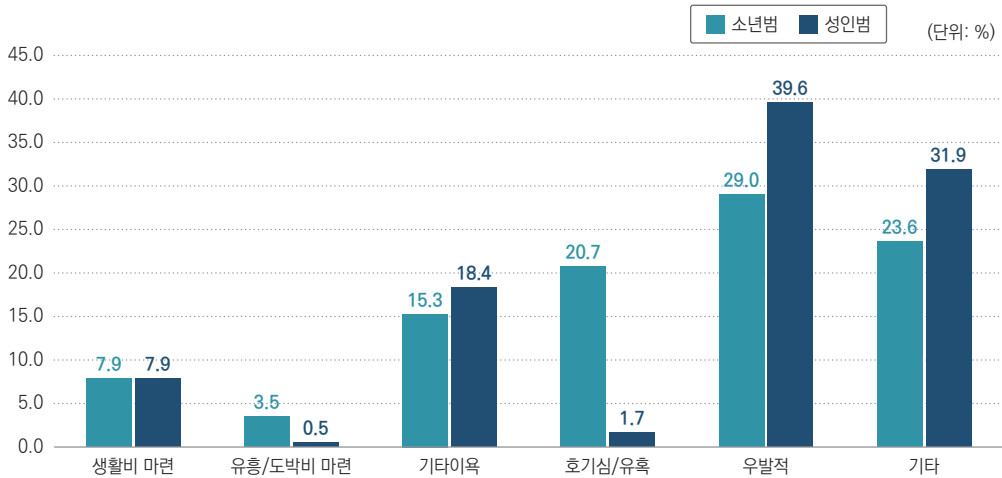


그림 60 절도범죄 범의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

7. 사기

1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2022년 총 329,358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다.
- 사기범죄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63.0%, 여성이 37.0%였다.

- 사기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, 21세~30세가 22.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그 다음은 51세~60세(20.1%), 41세~50세(18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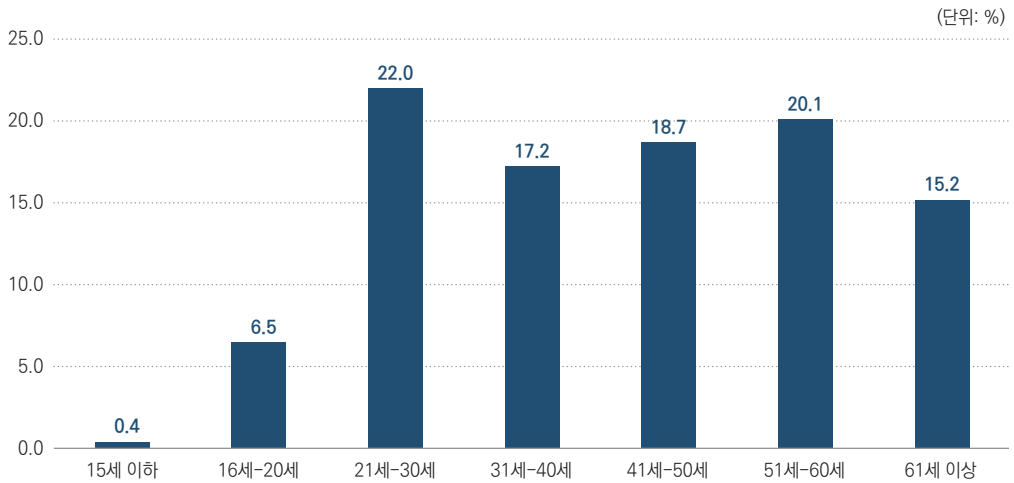


그림 61 사기범죄 피해자의 연령

2) 재산피해정도

-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살펴보면, 10만원 초과~100만원 이하가 30.4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1,000만원 초과~1억원 이하로 25.4%를 차지하였으며, 100만원 초과~1,000만원 이하의 비율은 23.4%를 차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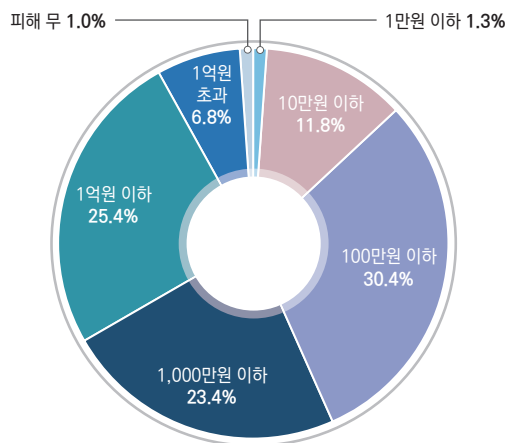


그림 62 사기범죄 피해자의 재산피해정도

3) 범행수법

- 사기범죄의 범행수법은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, 매매가장(22.1%)이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가짜속임(18.2%), 차용사기(6.1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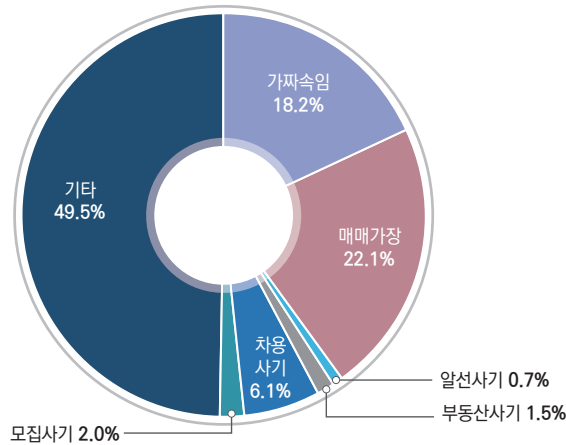


그림 63 사기범죄의 범행수법

4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검거된 사기범죄 범죄자의 76.7%는 남성이고, 23.3%는 여성이다.
- 검거된 사기범죄 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, 19세~30세가 26.9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51세~60세(20.9%), 41세~50세(19.1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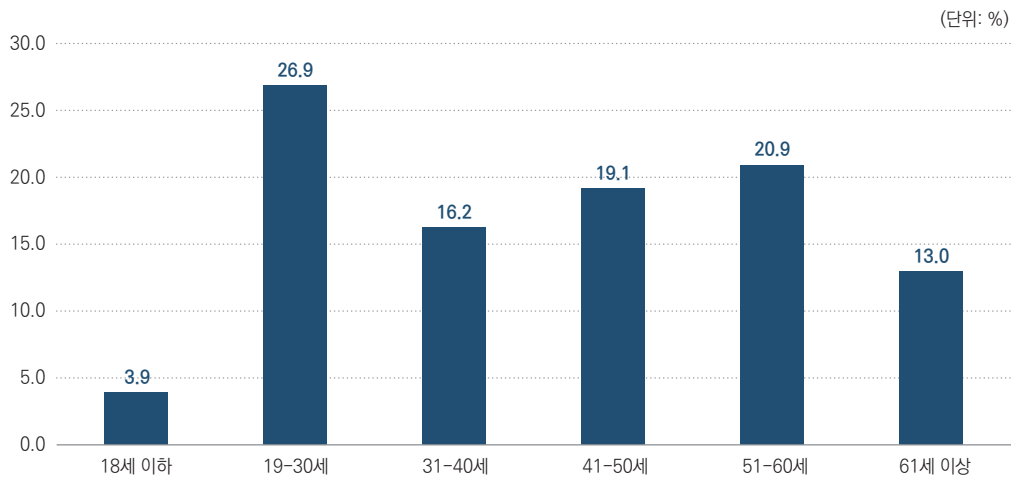


그림 64 사기범죄 범죄자의 연령

8. 교통범죄

1) 범죄발생건수

- 2022년 총 273,745건의 교통범죄가 발생하였다. 이 중 교통사고 범죄는 97,615건으로 교통범죄의 35.7%에 해당되며, 교통사고 범죄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는 176,130건으로 64.3%에 해당된다.

2) 범죄발생시간

- 교통범죄가 가장 빈발하는 시간대는 밤(20:00~03:59)(41.7%)인 것으로 나타났다. 교통사고 범죄는 오후 시간대(33.0%)와 밤 시간대(25.6%)에 많이 발생한 반면에, 교통사고 범죄를 제외한 기타 교통범죄는 51.9%가 밤 시간대에 발생하였다.



표 37 교통범죄 유형별 범죄발생시간별 분포

(단위: 건(%))

범죄발생시간	교통범죄 유형		계
	교통사고 범죄	기타 교통범죄	
새벽 04:00~06:59	5,304(5.6)	10,888(7.3)	16,192(6.6)
아침 07:00~08:59	7,898(8.3)	6,180(4.1)	14,078(5.8)
오전 09:00~11:59	12,509(13.2)	14,050(9.4)	26,559(10.9)
오후 12:00~17:59	31,284(33.0)	30,334(20.3)	61,618(25.3)
저녁 18:00~19:59	13,431(14.2)	10,214(6.8)	23,645(9.7)
밤 20:00~03:59	24,246(25.6)	77,479(51.9)	101,725(41.7)
계	94,672(100.0)	149,145(100.0)	243,817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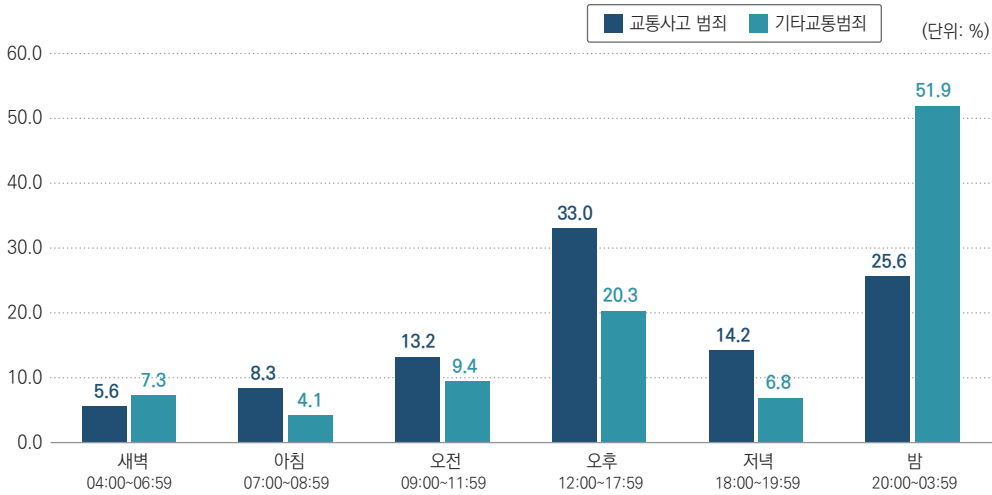


그림 65 교통범죄 유형별 범죄발생시간별 분포

3) 범죄발생지역

- 2022년 교통사고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(28.3%)였고,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(16.2%)였다. 반면에 울산광역시(1.0%)는 16개 시·도 중 교통사고 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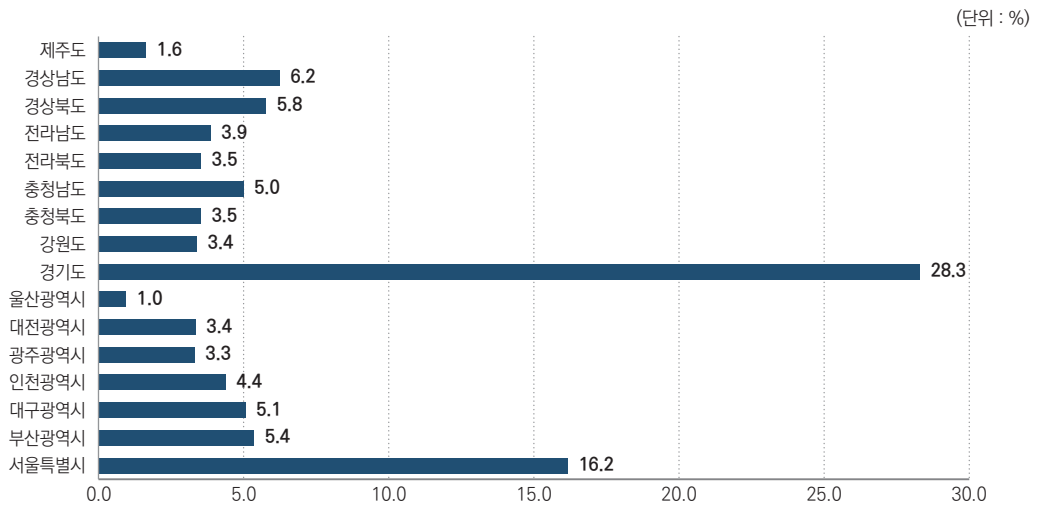


그림 66 지역별 교통사고 범죄 발생비율

- 교통사고를 제외한 기타 교통범죄의 경우에도 경기도(27.8%)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(13.4%)였다. 울산광역시(1.3%)는 기타 교통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었으며, 그 다음은 제주도(1.7%)와 대전광역시(2.1%), 광주광역시(3.3%) 등의 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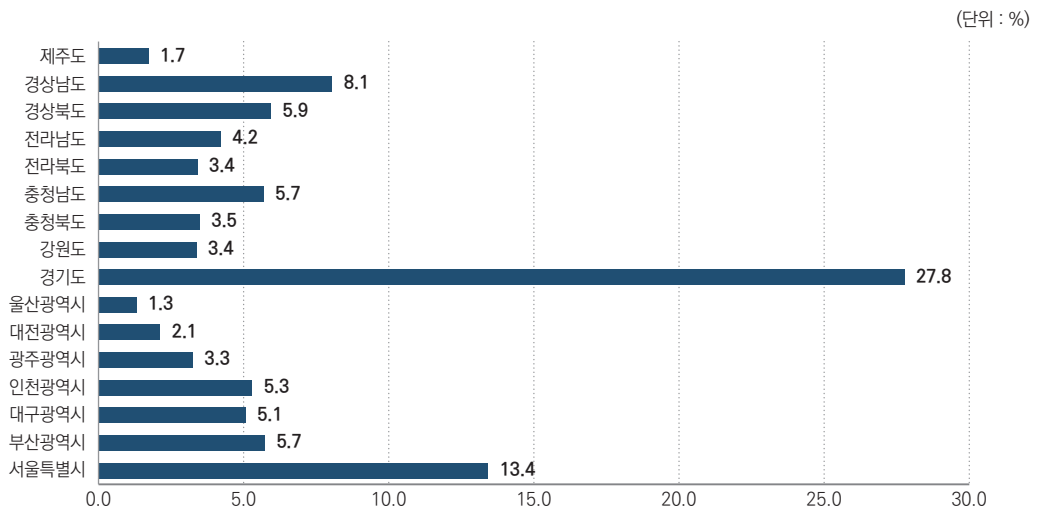


그림 67 지역별 기타 교통범죄 발생비율

4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교통범죄 범죄자의 85.7%는 남성이었으며, 14.3%는 여성이었다. 남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기타 교통범죄(89.6%)의 비율이 교통사고 범죄(78.8%) 보다 높은 반면, 여성범죄자는 교통사고 범죄(21.2%)가 기타 교통범죄(10.4%)의 비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.

표 38 교통범죄 범죄자의 유형별 성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성	교통범죄 유형		계
	교통사고 범죄	기타 교통범죄	
남성	76,983(78.8)	152,277(89.6)	229,260(85.7)
여성	20,751(21.2)	17,654(10.4)	38,405(14.3)
계	97,734(100.0)	169,931(100.0)	267,665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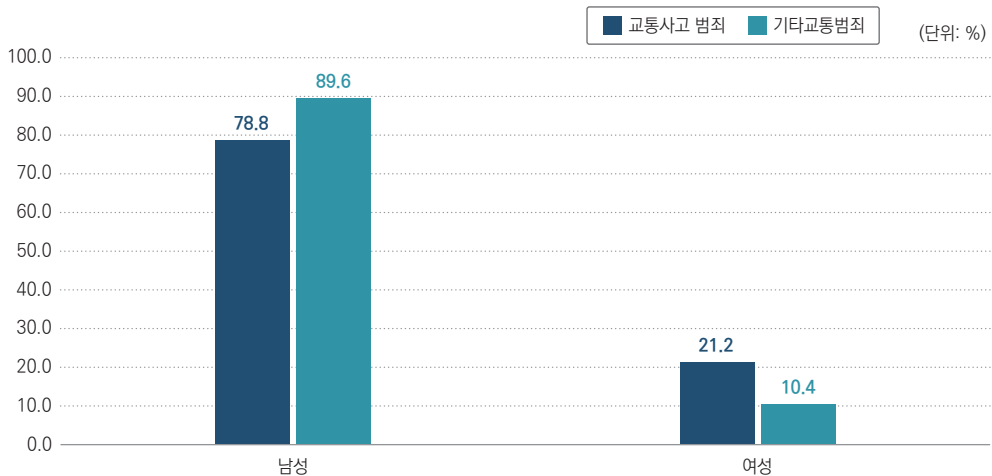


그림 68 교통범죄 범죄자의 유형별 성별 발생비율

5) 범죄자의 연령

- 교통범죄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51세~60세로 전체의 21.8%를 차지하고 있다. 그 다음으로 41세~50세의 연령대는 21.2%, 31세~40세의 연령대는 18.6%를 차지하고 있다. 교통범죄 유형별로 연령분포를 살펴보면, 50세 이하는 교통사고 범죄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높고, 51세 이상은 교통사고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표 39 교통범죄 범죄자의 유형별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교통범죄 유형		계
	교통사고 범죄	기타 교통범죄	
18세 이하	2,249(2.3)	5,316(3.1)	7,565(2.8)
19세~30세	16,928(17.3)	32,138(18.9)	49,066(18.3)
31세~40세	14,827(15.2)	35,029(20.6)	49,856(18.6)
41세~50세	17,397(17.8)	39,309(23.2)	56,706(21.2)
51세~60세	22,014(22.5)	36,396(21.4)	58,410(21.8)
61세 이상	24,268(24.8)	21,613(12.7)	45,881(17.2)
계	97,683(100.0)	169,801(100.0)	267,484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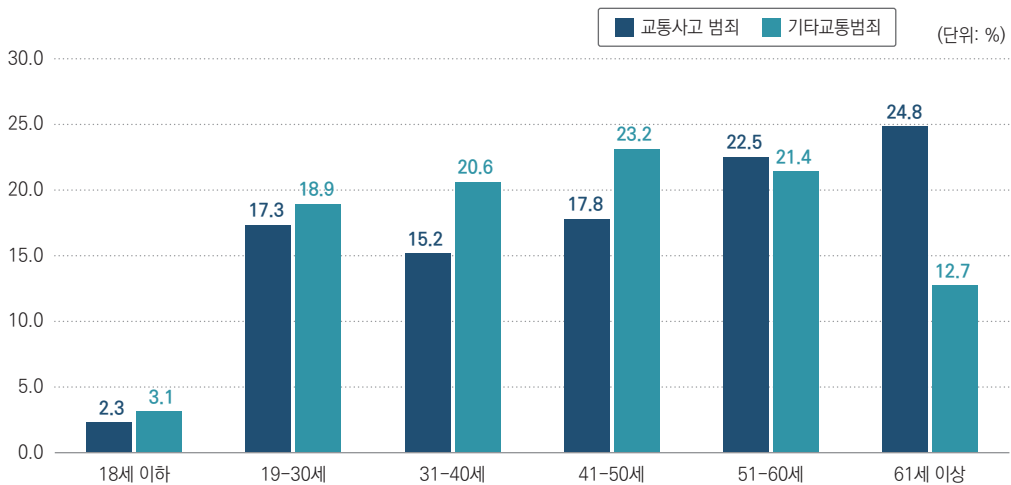


그림 69 교통범죄 범죄자의 유형별 연령별 분포

9. 13세 미만 아동대상 범죄

가. 아동유괴²¹

1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2022년 총 284건의 약취유인범죄가 발생하였으며, 이 중 62.7%에 해당하는 178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였다.
- 아동유괴 피해자의 39.3%가 남성아동이고, 60.7%가 여성아동으로 여성아동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.

2) 범죄발생시간

- 아동유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(12:00~17:59)로 전체범죄의 56.4%를 차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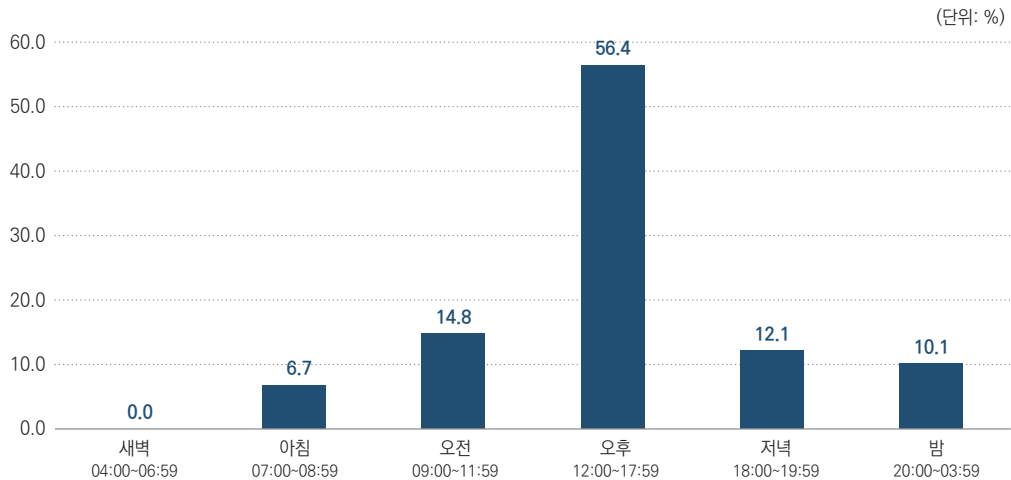


그림 70 아동유괴범죄의 범죄발생시간

21 아동유괴란 「형법」의 약취유인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범죄를 의미

3) 범죄발생장소

- 아동유괴범죄의 45.5%(81건)가 노상에서 발생하였으며, 그 외 주거지(44건, 24.7%), 기타(53건, 29.8%)에서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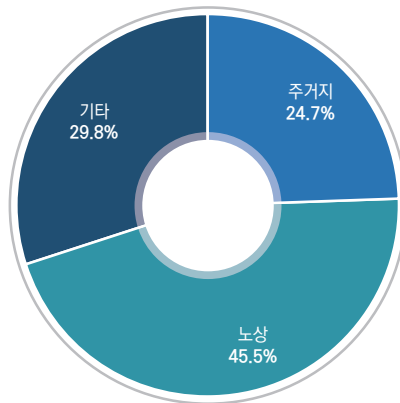


그림 71 아동유괴범죄의 범죄발생장소

4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의 70.3%(104명)가 남성이며, 29.7%(44명)가 여성이었다.
- 아동유괴범죄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층은 31세~40세와 61세 이상(각 23.6%)이며, 그 다음은 51세~60세(16.9%) 등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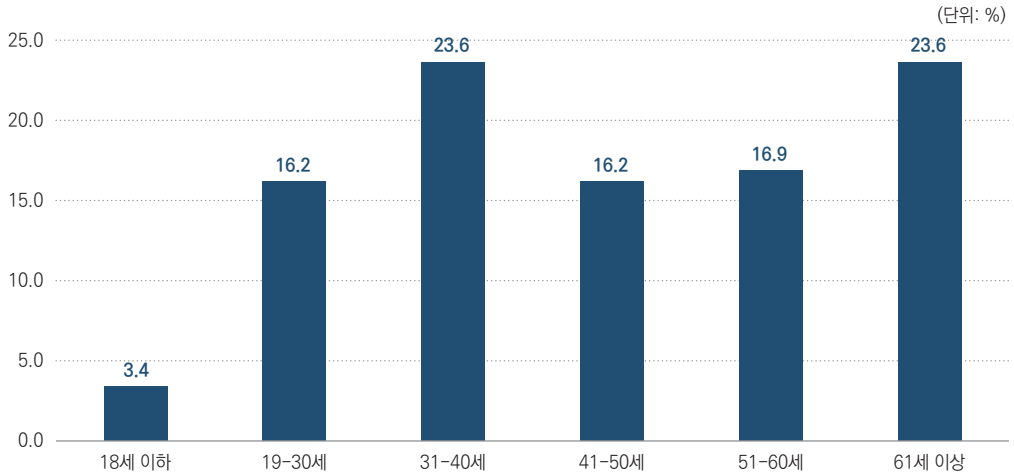


그림 72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의 연령

5) 범죄자의 전과와 재범유형

-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의 50.6%가 검거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과자로 나타났다. 또한 아동유괴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동종재범자는 9.6%(8명)로 나타났다.

6) 공범 여부

-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의 85.5%(71명)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. 공범 중 6.0%(5명)가 친인척이었다.

7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인 경우(67.5%)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, 그 다음은 친족(19.3%), 이웃/지인(7.2%) 등의 순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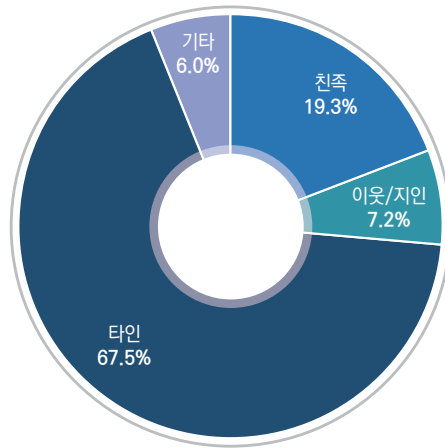


그림 73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나. 아동성폭력

1) 발생건수

- 2022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,344건이었다.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3년부터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감소 후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. 지난 10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14.7% 증가하였다.
- 13세~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017년을 제외하고는 2013년부터 감소하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. 지난 10년 동안 13세~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0.6% 감소하였다.



표 40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발생건수 추이(2013년~2022년)

(단위: 건, %)

연도	발생건수			증감률	
	13세 미만	13세-20세	계	13세 미만	13세-20세
2013	1,172	8,719	9,891	-	-
2014	1,208	8,322	9,530	3.1	-4.6
2015	1,272	7,753	9,025	8.5	-11.1
2016	1,231	7,342	8,573	5.0	-15.8
2017	1,270	8,079	9,349	8.4	-7.3
2018	1,283	7,308	8,591	9.5	-16.2
2019	1,376	7,108	8,484	17.4	-18.5
2020	1,155	6,310	7,465	-1.5	-27.6
2021	1,210	6,904	8,114	3.2	-20.8
2022	1,344	8,667	10,011	14.7	-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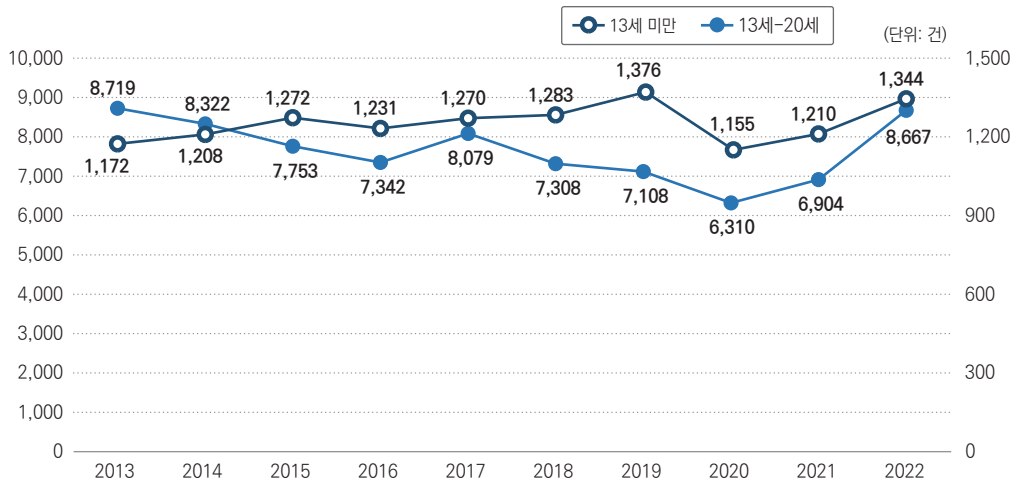


그림 74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발생건수 추이(2013년~2022년)

2) 성폭력범죄 유형

-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, 강제추행이 65.3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은 강간/간음으로 20.9%를 차지하였다.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강제추행(33.8%)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전체적으로 아동과 13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는 강제추행이 38.1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, 그 다음은 강간/간음(22.1%), 통신매체이용음란(20.1%) 등의 순이다.

표 4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유형별 분포

(단위 : 건(%))

성폭력 유형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강간/간음	281(20.9)	1,930(22.3)	2,211(22.1)
강제추행	878(65.3)	2,932(33.8)	3,810(38.1)
강간등	14(1.0)	62(0.7)	76(0.8)
강간등살인/치사/상해/치상	5(0.4)	74(0.9)	79(0.8)
특수강도강간등	6(0.4)	29(0.3)	35(0.3)
카메라등이용촬영	46(3.4)	1,130(13.0)	1,176(11.7)
성적목적의장소침입	6(0.4)	70(0.8)	76(0.8)
통신매체이용음란	84(6.3)	1,930(22.3)	2,014(20.1)
공중밀집장소추행	1(0.1)	177(2.0)	178(1.8)
허위영상물편집·반포등	2(0.1)	81(0.9)	83(0.8)
촬영물등이용협박·강요	21(1.6)	252(2.9)	273(2.7)
계	1,344(100.0)	8,667(100.0)	10,011(100.0)

3) 피해자의 성(性)과 연령

- 13세 미만 아동피해자의 86.1%가 여성아동이다. 아동피해자 중 13.9%가 남성아동이었는데, 이는 13세~20세 연령층 피해자의 경우 남성피해자가 15.3%라는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.



표 42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

(단위: 건(%))

피해자 성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남성	186(13.9)	1,329(15.3)	1,515(15.1)
여성	1,156(86.1)	7,333(84.7)	8,489(84.9)
계	1,342(100.0)	8,662(100.0)	10,004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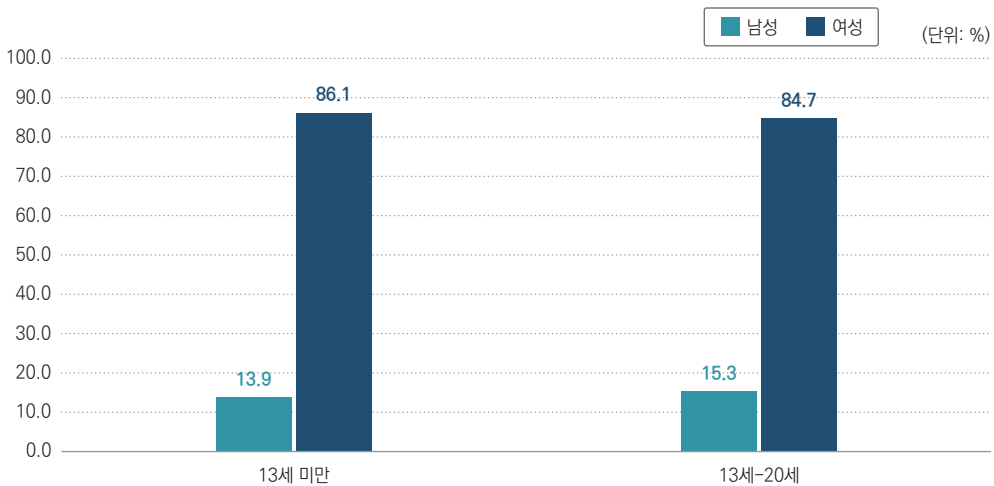


그림 75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비율

4) 범죄발생시간

-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(12:00~17:59, 54.9%)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13세~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밤(20:00~03:59, 42.4%)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 대비된다.

표 4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발생시간별 분포

(단위: 건(%))

범죄발생시간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-20세	
새벽 04:00~06:59	24(2.5)	448(7.0)	472(6.5)
아침 07:00~08:59	33(3.5)	281(4.4)	314(4.3)
오전 09:00~11:59	88(9.3)	525(8.3)	613(8.4)
오후 12:00~17:59	522(54.9)	1,683(26.5)	2,205(30.2)
저녁 18:00~19:59	137(14.4)	727(11.4)	864(11.8)
밤 20:00~03:59	147(15.5)	2,695(42.4)	2,842(38.9)
계	951(100.0)	6,359(100.0)	7,310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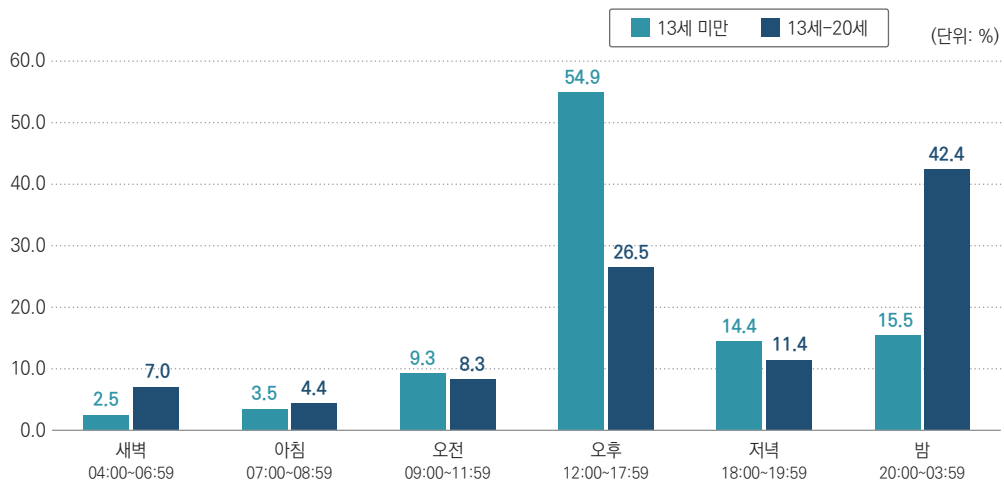


그림 76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발생시간별 비율

5) 범죄발생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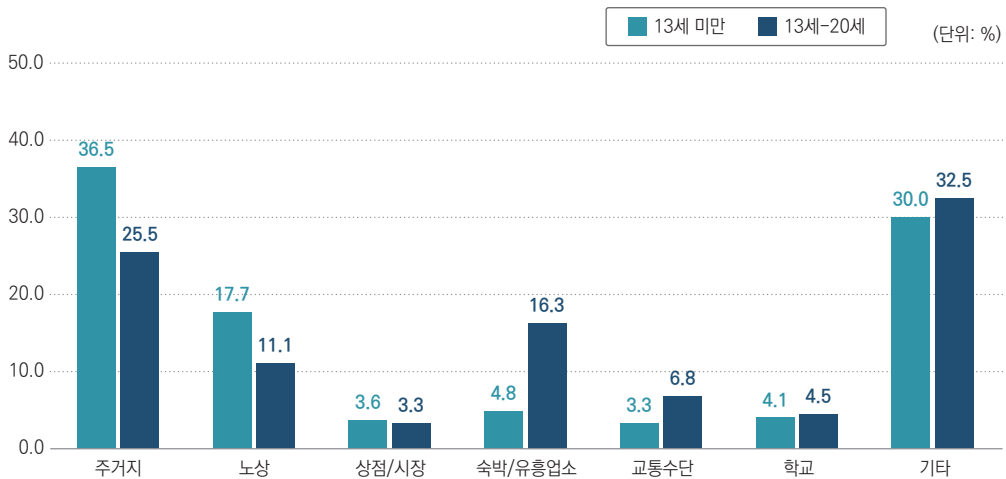
- 범죄발생장소 중 기타를 제외하고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거지(36.5%)이며, 그 다음은 노상(17.7%) 등의 순이었다.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(25.5%)이며, 그 다음은 숙박/유흥업소(16.3%), 노상(11.1%) 등의 순이었다.

-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가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주거지, 노상, 상점/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표 44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발생장소별 분포

(단위 : 건(%))

범죄발생장소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주거지	490(36.5)	2,211(25.5)	2,701(27.0)
노상	238(17.7)	965(11.1)	1,203(12.0)
상점/시장	49(3.6)	282(3.3)	331(3.3)
숙박/유흥업소	65(4.8)	1,415(16.3)	1,480(14.8)
교통수단	44(3.3)	586(6.8)	630(6.3)
학교	55(4.1)	390(4.5)	445(4.4)
기타	403(30.0)	2,818(32.5)	3,221(32.2)
계	1,344(100.0)	8,667(100.0)	10,011(100.0)


그림 7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발생장소별 비율

6) 범죄자의 성(性)과 연령
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97.9%는 남성이고, 여성은 2.1%에 불과하였다.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19세~30세로 21.5%를 차지하고 있다. 그 다음은 18세 이하(21.3%), 61세 이상(19.8%) 등의 순이었다.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는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표 45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연령별 분포

(단위 : 명(%))

범죄자 연령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18세 이하	247(21.3)	2,087(28.7)	2,334(27.7)
19세~30세	249(21.5)	3,031(41.6)	3,280(38.9)
31세~40세	117(10.1)	870(12.0)	987(11.7)
41세~50세	155(13.4)	549(7.5)	704(8.3)
51세~60세	161(13.9)	439(6.0)	600(7.1)
61세 이상	230(19.8)	303(4.2)	533(6.3)
계	1,159(100.0)	7,279(100.0)	8,438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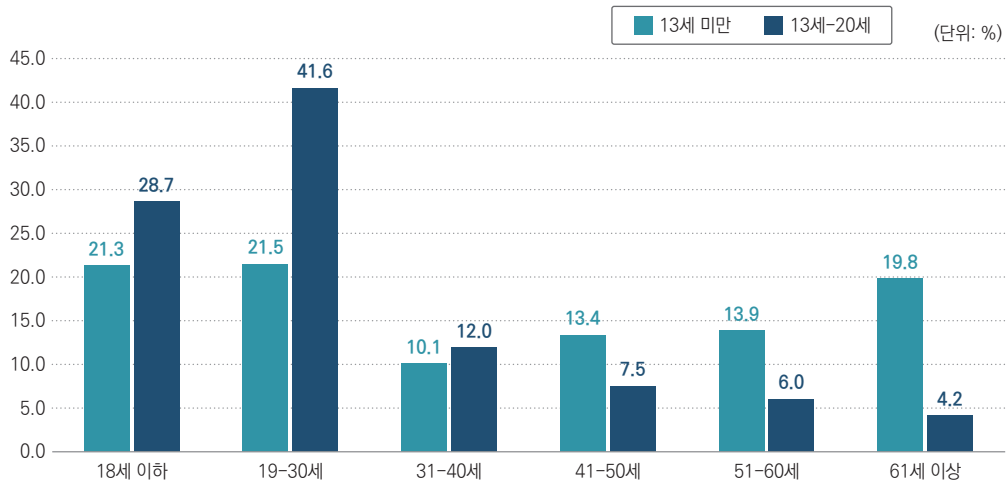


그림 78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연령별 비율

7) 범죄자의 전과 및 동종재범
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50.1%가 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리고 재범자 중 23.0%가 이전에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동종재범자로 나타났다.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는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보다 전과 비율(13세 미만 50.1% / 13~20세 36.4%)이 높았으며, 동종재범 비율은(13세 미만 23.0% / 13세~20세 23.8%) 13세~20세 범죄자가 높게 나타났다.

8) 범행당시 범죄자의 정신상태
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81.6%가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.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0.9%이며,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7.5%이다.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낮은 반면에,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비율은 더 높았다.

표 46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의자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범행시 정신상태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정상	817(81.6)	4,654(77.7)	5,471(78.2)
정신장애	75(7.5)	115(1.9)	190(2.7)
주취	109(10.9)	1,223(20.4)	1,332(19.0)
계	1,001(100.0)	5,992(100.0)	6,993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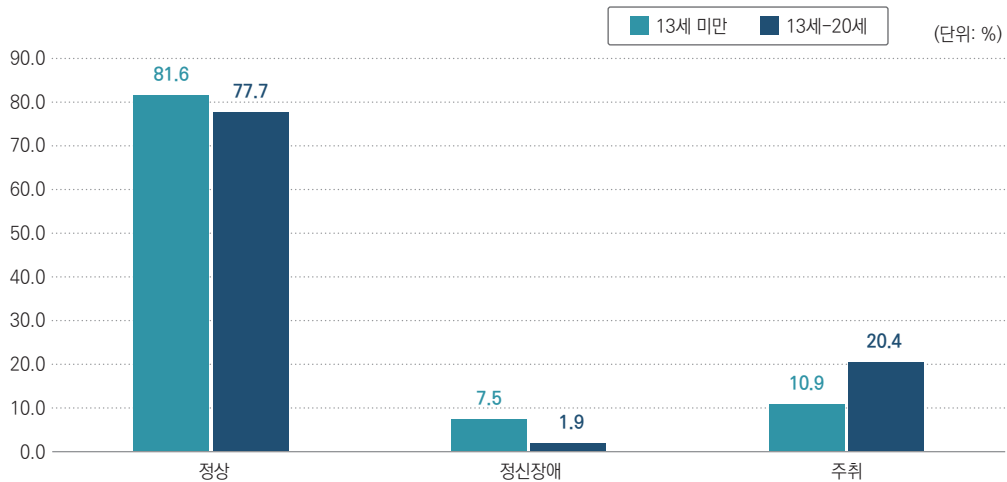


그림 79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의자 범행시 정신상태별 비율

9) 공범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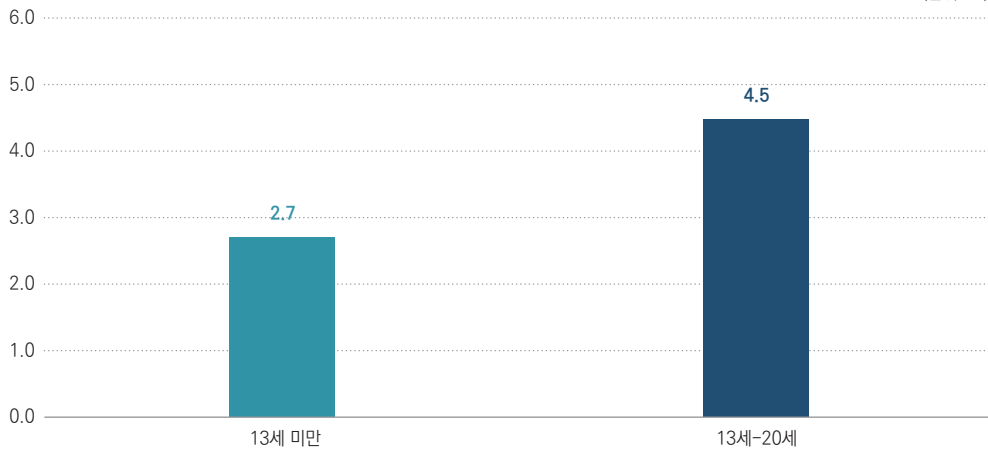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97.3%가 단독범이었다.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95.5%가 단독범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연령에 따른 공범비율은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표 4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공범 여부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공범 여부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~20세	
단독범	972(97.3)	5,720(95.5)	6,692(95.8)
공범	27(2.7)	268(4.5)	295(4.2)
계	999(100.0)	5,988(100.0)	6,987(100.0)

(단위: %)


그림 80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공범비율

10)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

-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, 63.4%가 타인이었다. 그 다음으로 이웃/지인(13.9%), 친족(13.3%) 등의 순이었다.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13세~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이웃/지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.

표 48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분포

(단위: 명(%))

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	피해자 연령		계
	13세 미만	13세-20세	
친구/직장동료	9(0.9)	715(11.9)	724(10.3)
애인	18(1.8)	287(4.8)	305(4.4)
친족	133(13.3)	156(2.6)	289(4.1)
이웃/지인	139(13.9)	680(11.3)	819(11.7)
타인	635(63.4)	3,746(62.5)	4,381(62.6)
기타	67(6.7)	413(6.9)	480(6.9)
계	1,001(100.0)	5,997(100.0)	6,998(100.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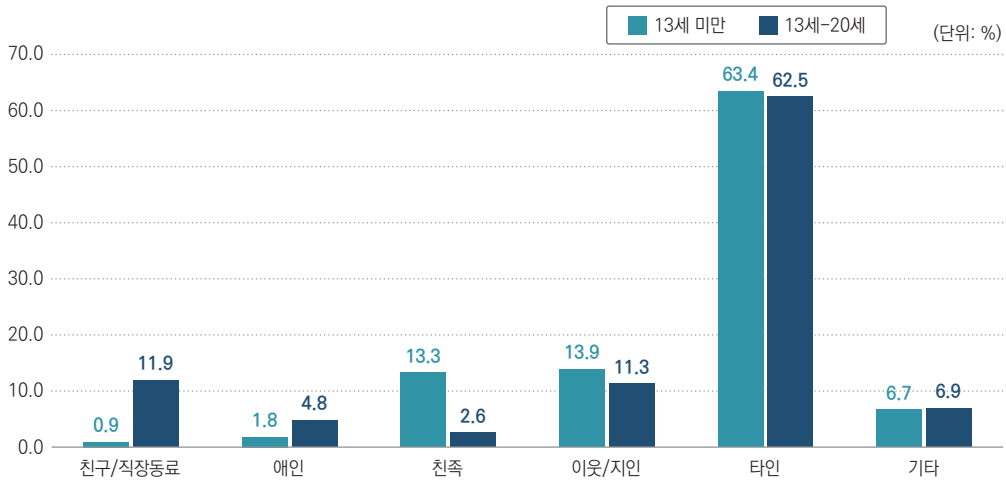


그림 8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비율